東亞日報

本紙六面

發行所 京城府 株式會社 東亞日報社

教育과社會及新女性

一

教育은모든文化를向上發展식히는것이나 現代文明의産母라고하기는어려다할지라도 잇서야할産婆의職務는잇는것이다 그것이産婆的地位라고할지라도 그것이사람의際遇와는 다른바가만하야 사람은産母라야 子女를孕하고 사람을낫는데에臨하는것이니 産母에게絶對性이잇지만은 教育은 아모리産婆的地位에잇다할지라도 그것이絶對的意味의産婆가아니다 文化의産母는産業이오 教育은그助産者라고는할지라도 産業이發達한에는 教育의普及과向上이必要한것도事實이나 教育은産業의發達로因하야 胚胎되야産出되는文化의産婆에 助産者가될際遇가만하지만은 産業을産出하는作用도亦然가지고잇는이만큼 教育은絶對的意味의文化의産母가아니라어느때에는産業의産母오文化의産母的地位를가지는것이니 이만큼 教育은人間生活에重要한意義와地位를가지나니 一般的으로보아서 그러할뿐아니라 部分的으로보아서 우리社會에서는 産業을云謂하는것보다도教育을力唱하여야될方面이多大한것으로미루어 吾人은亦然教育第一을말하야온것이다

二

그러나教育이라고하는것은恒常그社會의進化過程에適合함을要하는것이다 朝鮮의現在教育과가치普通學校教育을所謂日語專門에徒勞할뿐아니라日語에치우치는根本方針우에樹立되여잇는故로中等學校教育이라고하는것도 여러가지不自然과缺陷을가졋나니 이와갓흔教育이 社會의實際와는 맛지아니함에도不拘하고 그대로施行되는故로 社會自體도不自然한破綻中에包圍되여混亂이至極한우에以上의禍害를 끼친다고할것이다 現下우리社會에서 敎化增加하는 青年의風紀上狂浪과悲劇에도 어느因果關係가잇는것이다 이런教育이주는禍를들어生覺지 오날날青年男女에게서자조이러나는 悲劇의重大한動機가高壓的政治와 그에서派生되는社會의暗澹이 青年을絶望에引導하고 그結果가 各種各色의 悲慘劇을演出식히는것이지만은 그에加勢하는것이 社會의實際에 적當하지아니한 教育의罪도 적지아니하다할것이다

三

이에新教育을밧는知識階級의 青年男女의悲劇中 이社會的缺陷과教育의惡影響에犧牲된一例로볼만한것이金某라는 男子와尹某라는女子의情死事件이다 情死라는것도 近來우리社會에적지아니하게流行되는터이니 그조차못한變態心理로因한個人의行動을그대지重要視할것이업다하면 그것도一理가잇는말이다 그러나그네들이 相當한思想만은 吾人은그네들을罪過할수도잇지만은 力量가진者들이오며 女子로말하면 現今朝鮮의樂界에서 天才로認定밧는 사람인그만큼 現下의社會와그우에施行되는教育을批判하야 新教育을밧고社會에나오는 新女子에게주는暗示는 深刻하고 또한教訓이적지아니한줄밋는다

四

그男子가그에이른動機도그父子間의思想上不合에잇는듯하나 이것도크게論議할바가잇거니와 爲先그女子만을볼지라도 相當한才質과性格의所有者이지만은 그가가지고잇던希望과理想은 實社會와는너머나 懸隔함에不拘하고 自己의個性과才質에 合하야 實社會와調和하야갈才能을가지지못하엿슴으로 結局은社會에서버린사람이되엿고 그結果그의最近生活이 自暴自棄에近하엿슬뿐아니라 果斷性이 잇는그의性格은 畢竟自己의生命을自己가끈는데에이르럿스니 人間으로서相當한品性을가지고나왓던사람이지만 그混沌錯亂한社會에서바든教育은다시社會의缺陷을 調和할能力을주지아니하엿스니 그의죽음은一方으로社會의缺陷을暴露하는同時에 社會에서지나가지아니할수업는青年男女에게辛辣한教訓을주는것이다 即忍耐性을가지지아니한先進者의末路는그사람과갓흔 犧牲者가되기쉬우니 이것이新進男女青年에게준 큰實物教訓이될뿐아니라 그러한子女를둔父兄의注意를바라고할것이다

聯軍一日부터 總攻擊開始
砲聲이北京에殷殷

聯合軍全線總攻擊은一日拂曉부터開始되야 張學良、張宗昌氏等은 親히戰線에立하야 指揮에當하는바 奉軍聯隊長二名은戰死하엿스며 去四月十五日國民軍北京撤退以來의激戰으로 砲聲은目下北京에서지殷殷히들린다더라(北京二日發)

昌平을中心激戰
奉天軍形勢가有利?

奉天軍은去一日부터張學良自身指揮下에昌平을中心으로하는前線의總攻擊을開始하고猛烈한砲火를交하야翌二日에는昌平正方의最前線은一千米突前進하야數個의高地를占領하고戰局은現奉天軍에有利하며展開하엿다 國民軍은一組의餘裕를隔하야抗하나兵力不足으로漸次退却하는中이라하며 南口의他點에迫하고强硬히抵抗하는中이나張學良은數日이면南口를占領한다고豪語하더라

國軍形勢不利
全線總退却準備?

(電文不明)쿠챵方面의國民軍形勢가逼迫하고懷來方面도亦是國軍에게不利한結果全線에亘하야總退却을準備中이더라 國民軍은安協條件等은然後에商議할것이라고密電을發하엿더라(北京二日發)

吳佩孚氏 張之江에密電
懷來를放棄하라고

吳佩孚氏는孫傳芳氏를通하야張之江氏에게對하야將來和議의誠意가잇스면懷來를放棄하라고(電文不明)求를發하엿더라(北京三日發)

카氏更迭要求
外交部對赤露

外交部는駐露代理大使鄭延禧氏를通하야最近소비에트政府에對하야速히카라한氏를更迭하고露中國交를維持하라고正式要求를發하엿더라(北京三日發)

馮氏近近 張家口에歸還
南口戰線을指揮할터

確實한情報에依하면馮玉祥氏는二十五日에울루바톨에着하야近近張家口에歸還하야南口戰線을指揮하리라더라(北京二日發)

電報發信權 剝奪事件解決

七月五日中國交通部가日本新聞聯合社北京支社의新聞電報發信權을剝奪한問題에對하야日本公使館이抗議中이든바一日外交部는聯合通信支社長에게發信券을附與할旨를通知하야解決되엿더라(北京二日發)

法權會議調印
來九月頃

法權會議各國共同報告書는連日日本公使館에서起草委員會를開하고日本側佐分利、澤田、鹽崎、安屋諸氏出席하야完成에努力하는바二週間을要할것이오調印은九月에入하리라하며從하야日本側委員은來月이될터이오調印에際하야는豫定과如히日置參事의來東을見하리라더라(北京二日發)

亞洲大會 反對決議
各國體聯合會

上海의營業勞働其他諸團體代表는目下長崎에開催中인亞細亞民族大會反對의大會를開하고 이大會는日本이自國의侵略政策의目的을達하기爲하야開催한것이다 日本은맛당히速히其侵略政策을[illegible]

中國共產黨의 東三省攪亂策
馬賊孫一派를操縱하야

最近滿蒙方面의情報에依하면中國共產黨은露領秋風方面에阿片栽培를爲하야移動한馬賊團頭孫繼武一派를操縱하야沿邊地方의馬賊團과連絡을取하야東三省攪亂을策하는模樣이더라

東邊道尹憤怒
辭職을覺悟出奉

東邊道尹은安東紅幅事件에關하야極度로憤慨하고萬一不容되면職을賭할覺悟로出奉張作霖에게[illegible]하리라

王寵惠時局談

王寵惠氏는法權會議關稅會議內閣問題에對하야左와如히말하더라 列國委員의法權調查報告는後二週間이나되면그草案이委[illegible]

勞農政府 新聞報告禁止

『소비엣트』政府는法律로外事、經濟、外交에關한一切의情報에關하야政府에서發表하는以外의新聞記事를禁止하야그取締를매우嚴重히行한다더라

孫氏平和通電은 蔣氏威脅에壓倒된까닭

蔣孫間에內約이잇섯다는것과孫氏가그內約을잘履行치안는다함은이미報道한바이어니와孫氏는湖南이攻下된今日에도그態度를鮮明히하지아니한다 그러나孫의態度가曖昧함을國民政府에서는그대로잇슬수가업다하야韶關에內紛에도蔣總司令의招關出陣도그實은孫에게對한一種威脅의對策이라고볼수잇다 이러한關係로福建의周蔭人、江西의鄧如琢等도北伐軍의得勝을보고서그威勢에눌려自己地盤만奪取하지아니하면北伐軍을妨害치아니할뜻을表示하는一方이미부터海軍을派遣하고孔祥熙等을後援하든孫氏도그態度를變하야南北平和通電等으로時局을解決하자는態度를表示한다더라(上海特派員發)

國防公債利引上

佛國國防公債의利子를一年滿期六分五厘、二個月五分、三個月五分六厘、一個月三分六厘에各各引上하엿더라(불도二日發)

金融公債絶望
代理總理反對로

關稅剩餘金을擔保로二千萬元의金融公債를發行하라하는中國政府의計劃은代理總理의反對에遂하야全혀絶望에歸하엿더라(北京二日發)

(上海二日發)... 亞細亞民族大會開催를하야其誠意를示할것이라고決議하엿더라(上海二日電)

上海에서…… 左派大會開催
內外綿罷業尙未解決

共產派에對한中國政府의取締가嚴重한外에日前에罷業은一時閉塞되는듯하나一方그들의指揮下에잇든外綿第九日華紡紡東工場中國側紡績工場等의罷業은尙今解決치못하엿는데二日午前七時부터湖北의秘密本部에서上海의共產派領袖를爲始하야活動分子數百名의大會合이行하고內容은아즉不明한바그方針은決定할會議라더라(上海二日發)

倒壞運動說
廣東政府 魏邦平一派가

前廣東軍司令魏邦平氏의來京에次하야最近廣東、香港에서財政家銀行家의來京이頻頻한바現廣東政府倒壞를目的한借款運動이라고傳하고그黨部에梁士詒氏가잇다고하더라(北京二日發)

第三國際黨 『지』氏追放保障
지氏國際黨會長도辭任?

二年間西伯利에

莫斯科來電에依하면第三國際共產黨執行委員會는滿場一致로勞農政府의『지노비에프』氏追放을保障하엿슴으로『지』氏는第三國際共產黨의會長을辭任하리라고觀測되더라(伯林二日發)

莫斯科來電에依하면第三國際黨首領『지노비에프』氏는四日二個年의休暇를得하야西伯利에向할터이라더라 東洋問題에依하야 政治的으로觀測한다더라

前獨總理가 獨墺合倂을期待
對佛關係更新力說

前獨逸總理『월트』氏는伯林『라게부랏트』에寄書하야 獨逸과墺地利合倂은結局遂行하여야될것인바오히려數代를經한後의事이라論하고獨逸과佛蘭西의關係를此際一新할必要를力說하엿더라

北中國에…… 日本駐屯軍增派
來年度豫算에計上

中國駐屯軍은義和團事件議定書에基하야北京及海濱間의連絡交通及各國共有公使館의保護를目的으로하고各國共히左와如히駐屯하엿다即

日本 八百名

山海關에서灤州에至한地區를警備함

米國 千四百名

英國 九百八十名

楊村으로北京까지를警備함

佛國 千六百名

大沽로楊村間을警備함

伊太利 三百八十名

그리고北京山海關大沽間은中國의中心을成하고中國政變及變亂에際하야交通安全居留民保護等重要한任務에就할必要가잇슴에不拘하고日本駐屯軍은兵數僅히八百名임으로有事之際에는兵備가甚히困難하고柳樹屯에서急援隊를派出식힐일이잇서種種不便이잇슴으로陸軍當局은今回增援寘行하기로된바 一、步兵約二個中隊(兵數約二百五十名)

亞族大會檢討【三】
RYS生

그러면亞洲에서覇主노릇하는日本帝國의『警笛아지』를은이民族問題를엇더케利用하는가? 一九二〇年以來北米合衆國에서排日의氣勢가漸次高하가자日本의朝野는 舉國的으로 激忿하엿다 그리하야 御用學者外 議政에서 料學에서 街路에서 米國及政治家등은窮擋에서 激勵하야 一般國民에게 恐怖心을 激動하며 곰日米戰爭外지豫想케하는同時政府當局은將來의大戰을準備하기에勿怠하여왓다 一方米國은一九二四年부터 새로운排日法을實施하야日本人의北米發展을아조抑制하엿슴으로 이에日本帝國의『警笛아지』는人『亞細亞에서西勢를驅逐하라』『亞細亞는亞細亞人의亞細亞다』라는것이곳그것이엿다 亞細亞民族이大同團結하야西勢에當하자는것이그의論據로一見亞洲人의共存共榮을爲한當然한主張인듯하나 其實은 以上에말한바와갓치米國에對한日本의對抗을爲하야亞細亞民族의一致로써米國의排日法에對抗하려는日本『警笛아지』의民族問題利用의國外的策略에不過한것이다 이뿐아니라 近來에와서彼等은

『有色人種의 備蓄』一部를차지하고잇다 『有色人種의 正』一部를차지 잇다 이러한論文中에는 『有色人種一味說』을 말하엿다 그論文에는 『有色人種一味說』이라는題下에『有色人種十四億의 先陣に立つ』라는 小題를노코그機를刊行日文紙朝鮮新聞(八九四六號)第一面에『日本民族の力』이라는 論告氏는 今年七月二十五日發 日本『警笛아지』學者로相當한名字를가지고잇는 法學博士上杉學者를가지고잇는 方略에不過한것이다 더욱有利하야 人種의 戰을有色人種에 二分하야 世界人類를 利用하는것보다 世界人類를 對抗함에 亞細亞民族이라는 地理的하려는뺨에는 이同盟軍을 더욱當하려는

日本民族이 三大强國의하나로 參列케된것은 有色人種에게對하야 非常한感動을與하엿다 그關係로歐洲大戰以後 有色人種은모다 自覺奮起하게되엿다 印度는率先하야獨立運動을일르키엿고 埃及은 이미獨立하엿다 其他其도그新興의勢, 자못미觀할바가잇고 『아메리카』의人들은 外지도 日本人의奮起를보고 獨立運動을熱烈히하고잇다 『日本民族이 十四億有色人種의先頭에서 西洋人에對하야 帝國主義破壞의一大戰鬪를宣言하지안으면 안되게된것은 實로不可思議의運命이다 얼골을들어 다만日本人의顏色만처다보고잇다 日本人이一步를進하면彼等도一步를進하고右

하면右 左하면左로간다 萬一日本人이退北한다면有色人種의運命도맛게될것이오 人類의將來는慘憺할것이다』云云 以上上杉博士의所論은 日本과同盟軍을맛니『아메리카』內에居住하는黑人에게外지라도發見하라는卓說로 日本民族이有色人種의盟友로引率하여가지고나아가 西洋人의帝國主義를對敵함으로써橫暴를發한다는것이다 이러한上杉類의卓說은彼○○○을合理化식힘에叶우有利하엿다 그럼으로彼○○○○은恒常日支親善이라든가日鮮融和가듯것을모다全人類의慘禍을務로케하려는日本民族의有色人種目撤에對한努力이라고主張하고또高唱한다

在上海印度人 印度獨立劃策
秘密會議를頻頻開催

目下長崎에서開會中인亞細亞民族會議에刺戟되야上海在留印度人間에又復排英熱이高調되는바이다 卽印度獨立에關係하는印度人은最近英國官憲의耳目을避하고各處에서秘密會合을行하고印度獨立의成果는東洋諸國特히日本의援助에俟치아니하면나될것이다라고論하고東洋諸國과의眞正한提携를熱望함으로英國官憲은不妙하리라더라

滿蒙統一案은 個人的으로考究

四頭政治統一은目下行政調查會委員間에서個人的으로意見이交換되야正式으로閣議에附議되기外지에는아니요此附議되는때는滿洲는樺太와如한殖民地와異하야그行政機關統一에就하야는調査委員의雜感나생각하는바로或은委員個人의意見이互相共鳴하야一致하여지면一個成案을作하야上程될는지不知이다그러고目下行政調査會에서個人的으로考究되는統一案內容은
一、滿蒙四頭政治統一을爲하야新任殖民地長官을置하고總理大臣에直轄케함
二、右長官은外交上의問題에關하야는外務大臣의命에服함
三、關東廳權限을縮少하고單히一地方廳으로하고長官統制下에置함(東京電)

『政友會는 普選의敵이다』
憲政會의態度

憲政會는三日午後一時부터本部에緋紀肅正에關한特別委員會를開하고意見을交換하야大要左와如한諸件을協議하엿더라(東京電)

一、所謂陸軍機密費問題

國民의判斷을求할必算

二、政友會는全然無政策

諸般政策으로積極政策地方分權等은全혀虛僞宣傳으로五十一議會에提出키不能한것이欺瞞할수업는證據이다

三、政友會는普選의敵

多年普選의普選에反對하고最後에不得已贊成한裡面에其勢力과結托하야陰謀를企圖한것은掩치못할事實이다

第七回 聯盟總會
日本代表任命

來九月瑞西제네바에서開催할第七回國際聯盟總會의日本代表者는三日左와如히正式으로任命되얏다더라(東京電)

駐佛特命全權大使石井菊次郞

白耳義駐箚同 安達峰一郞

瑞西駐箚特命全權公使 永井松三

瑞西제네바에서開催하는國際聯盟總會日本代表者被仰付

三、步兵砲(平射砲及曲射砲數門)

二、兵舍擴張(兵員增加를爲하야兵舍를擴張함)

四、總經費五十萬圓(臨時經常兩費를合함)

右經費는大正十六年度陸軍豫算에計上하기로되엿더라(東京電)

政友代議士 政府에警告提示
長事件에對하야

政友會의星野、秦、熊谷、安藤、森各代議士는三日午前九時齋田內相을訪問하고二十個所의廢合決定警察復活、知事警察部長의處分、檢察中止의三件警告를提示한後官邸에若槻首相을訪問同樣의旨를述하고辭去하엿더라(東京電)

賃率表改正
特定

八月四日附總督府告示로朝鮮國有鐵道貨物特定賃率中左의項을改正하엿더라

一、綿絲(가타綿을除함)下關發의項若松鎭南浦의下『新義州稅關』의次에安東을追加하야十日부터施行함

消息

◀石川衛生課長 全南北慶南의衛生行政事務視察次로出張中三日夜歸城

橫說竪說

◇上海의모든團體는、亞細亞民族大會의、反對大會를開催하고、日本은、速히그侵略政策을抛棄하야、誠意를示하라고、決議하엿다고

◇日本과關係가密接할수록、反對가甚하니、中樞日本側은、自己에對한正味를못하여가만큼이利益일가

◇生活에窮한、兩班의子息이、總督府官吏로써들을것다가、虛遊한情況이어나와、徐賊질에、中途를發見한것이兩班의本色

水原利川間 自動車通行安全

定期出發時間 午前八時半 午後二時半

直通賃金 一圓九十錢

水原驛前 中央自動車合資會社

電話 一四七番

●家庭에업지못할常備神藥

方名	定價	效能
解熱散	二十錢、五十錢	感氣、發熱
袪痰散	二十錢、五十錢	咳嗽、百日咳
養丸	二十錢	消化、氣鬱
健胃固腸散	二十錢、五十錢	胃痛、泄瀉、吐瀉
含嗽藥	二十錢	咽喉症、含漱用
驅梅膏	二十錢	下疳、腐瘡、切傷
百應膏	二十錢	乾瘡、濕疹用
開明水	二十錢	流行眼疾、眼目其他
電氣丸	二十錢、三十錢、一圓	胸痛、腹痛、頭痛、神經痛
金鶴蠟丸	二十錢、五十錢	痢疾、肺病
神効膏	二十錢、五十錢	疥瘡、頑癬、癰疽
ダルマ膏	二十錢	濕疹、火傷、凍瘡
大塚胃散	二十錢、五十錢	消化不良
驅虫散	二十錢、五十錢	蛔虫、蟯虫、五疳
萬能液	二十錢、五十錢	頭痛、頭痛
沃度丁幾	二十錢	打撲傷、關節、骨傷
治癩球	一圓三十錢、一圓八十錢	勞癩、沙癩、白癩
根治丸	一圓三十錢、一圓八十錢	根治及下疳

右는京城醫藥界에名聲이高揚한家庭常備藥으로原料의精選과効能의迅速함은本劑에限함

二錢郵票보내시면御引用及規則을送呈함

製造發賣元 京城南大門通四丁目 救世藥館

電話本局二九六九番 振替口座京城一二六九番

土產亭布賣出

敬啓 今年은呂號 國產亭布를...開業한지... 月以內에... 다수의 ... 하시는... 多少不拘하시고 ... 하시오

特別號 韓山亭 保寧亭 舒川亭 藍浦亭 鴻陽亭

(各號 價目: 十一圓、十圓、九圓、八圓... 略)

代金引換으로... 送料는本商會에서負擔함

土產亭布 通信販賣 忠南保寧郡熊川市 廣興商會 主任 吳炳九 吳現

大陸고무

第一登錄商標 第二登錄商標 京城

我고무 鮮鞋界 元祖

京城(鍾路)元町 專賣特約所 京城府南大門通四丁目 大陸고무工業株式會社 振替京城八五六番

◇…바위에부듸치는물결 ‖ 작일세검뎡에서

玄海灘激浪中에 青年男女의情死

男子는金祐鎭 女子는尹心悳

극작가와음악가가한떨기꼿이되야 세상시비터저두고 끗업는물나라로

지난삼일오후열한시에 하관(下關)을떠나 부산(釜山)으로향한관부연락선 덕수환(德壽丸)이 사일오전네시경에 대마도(對馬島)엽흘 지날지음에 양장을한녀자한명과중년신사한명이 서로껴안코갑판으로돌연히바다에몸을던져자살을하엿는데즉시배를멈추고부근을수색하엿스나그종적을찻지못하엿스며그선객명부에는남자는전남목포부북교동(全南木浦府北橋洞)김수산(金水山)(三〇)녀자는경성부서대문뎡(西大門町)이뎡목일백칠십삼번디윤수선(尹水仙)(三〇)이라하엿스나 그것은본명이아니요남자는김우진(金祐鎭)이요녀자는 윤심덕(尹心悳)이엿스며유류품으로는윤심덕의돈지갑에현금일백사십원과장식품이잇섯고 김우진의것으로는 현금이십원과금시계가드럿섯는데연락선에서조선사람이 정사를한것은이번이처음이라더라(부산뎐보)

尹孃은音樂家 金氏는劇作家

單身으로涉世한尹孃來歷과 百萬長者金氏의最近

◇살엇슬때의윤심덕양 (녀배우로나오던그당시)

尹心悳의來歷 별항과 가티 윤심덕양은 본래 평양(平壤)태생(生長)으로평양숭의녀학교(崇義女學校)를졸업하고 또한 평양녀자고등보통학교를맛친후 다시 경성녀자고등보통학교사범과를 맛치고 강원도마노못 보통학교의 교원으로봉직하다가 그후총독부 관비류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가서 동경음악학교를 수업한후 일년동안 더 성악에 관한연구를하며 가지고 오년전에귀국하야 자긔집안들이 모다 서울로 올라온것인데 조선의악계를 풍미하다가 일시는 그당시 악단의 명성으로 세상에 명성(聲名)을 떨친후로 악단에자최를감추고 작년겨울에 다시극단으로 방향을변한하야 토월회(土月會)의 녀배우로잇섯다 그후토월회에서 하퇴를하며 가장고는 시내수은동(授恩洞) 륙십번디 옥뎐(奧田)사며 의『라디오』방송과 『레코ー드』에 노래부러 넛는것으로직업을삼고 잇섯스며

◇생전의김우진씨◇

金祐鎭의來歷 또한김우진(金祐鎭)씨는 목포(木浦)에서나백만장자의맛아들로 년전동경조도뎐(早稻田)대학문화과본과를맛치고 극(劇)에 관한연구와 조예(造詣)가깁흔 청년으로 년전일본에서 정사를한 유도무랑(有島武郞)씨를몹시숭배하고잇섯섯는데 그는항상 자긔집에 재산이만하서 그호화로운생활을 오히려 끗업는고통으로생각하고잇다가 마츰내 그에무단히집을하직하고 지난얼마 전에 경성에잠간들리엇다가 그달 구일에 동경으로 건너가잇든것이라한다

半生을讚美하는 尹孃의蓄音歌盤

肉身은어드메로외로운淸歌妙曲

현해탄에몸을던진윤양의후반생은 외로운목에서흘러나온류청과소리

청악가로유명하든 윤심덕(尹心悳)양이 한번저승의길을떠낫스매 그의자태를 다시는 연단상에서 보일수가업스며 미혹케하든 그의음성을 드를수가업스되 그는일즉이 일본축음긔회사(日本蓄音機會社)의 초청을바더 ▲어엽분색시▲매기의추억▲나와너▲아ー그것이사랑인가▲어머니부르신다▲망향가▲방끗웃는월계화 등여러가지 노래를레코ー드에 부러너헛스며 이번죽엄길을 밟으려일본에 갓슬때에도 십여종의 노래를 부러 너헛다는데 아즉 세상에 나타나지안은 그『레코ー드』중에는 과연무슨유언이 나타잇슬는지? 윤심덕은 다시볼수가업스되 그의남겨는 목소리는 영구히세상에도라다닐것이다

藝術에共鳴되야 八年前사랑의싹

情死에이른兩人의關係

지난六월에서울서도종종맛나 량인이모다속으로는극도번민

그러면 윤심덕양과 김우진씨가 정사를하기까지의그경로와종래의 관계는엇더하엿던가 윤양은 동경에서 음악을배호는 한편으로 또한극에대한 집혼취미를가지고잇섯섯고 김씨는 동경조도뎐대학문과에서배호며역시극을 만히연구하야 량인의 예술(藝術)에대한공명으로부터서로사랑의싹이 돗기시작 하엿는듯한데지금으로부터약칠팔년전에동경류학생동우회(同友會)에서 극단을조직하여가지고조선각디를 순회하며 공연하든때에도권과량인이가치 그단에 참가하야 각처를함께 순회한일도 잇섯것다 윤양이 동경에서 나온뒤에는 서로맛나볼긔회가 드물어서 량인세에못보아 애타는가슴을부둥켜안고 서로상사의 한숨을지은적이 한두번 안이엇든 모양인데 그동안에도 서로서신 왕복과 종종맛나보는일도 잇섯스나 지난六월십일 바로안산진날쯤하야 김우진씨는 적지아니한돈을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윤양의 하숙하는수은동(授恩洞)륙십번디에서 간간맛나는일이잇다가 지난칠월초순경에 윤양이 김우진씨에 대하야 먼저동경으로 가잇스라고하야 그는먼저떠나동경시지구(東京市芝區) 엇던하숙에 가잇스면서 서로서신왕복도 종종잇섯는데 그후윤양도자긔의동생윤성덕(尹聖悳)양의 미국가는것을전송할겸하야 일본으로가서는 재작삼일 횡빈(橫濱)에서윤성덕양의떠나는것을보고도라나오다가그와갓치정사를한듯한데 김우진씨도 최근에극도로 번민을하고 잇섯다하며윤양도 역시것흐로는 쾌활하여하는듯하면서도뒤섭으로는무한한 번민을하고 잇섯든것이라 한다

『나의昔日의生活은 全部가非人間的』

思想을直言한金氏의最近便紙

아버지는내뜻을리기를바라지만 나는나의구든결심을변할수업다

김우진으로부터 경성에잇는 그 친고인조명희(趙明熙)씨에게로 동경(東京)에서마즈막부처상일에 경성에도착된편지의내용을보건대 『나는아모리하여도 굿게먹은 나의결심을변할수는업다 지금와서도나의아버지는내가가뎡에도라오기를기다리며내가가뎡의리를하여 그권과가튼그러한생활을하기를바라는듯하지만나는도뎌히 또다시그런한비인간뎍(非人間的)생활로또다시쓸데드러갈수는업다나는아모리어려움이잇더래도이제로굴치아니하고한개의사람으로써본래의인간청에기인한참생활을하여보겟다』는의미의것이더라

有島武郞과 彷彿한性格

◇김씨와친분잇는 ○○씨이야기◇

김우진씨의 정사사건에 대하야 그의친우인 리○○(李○○)씨는 『참말의외임니다 그러나 그는본래부터 자긔집에 그만흔재산에대하여서는 조곰도 애착을두지안코 오히려 호화로운생활에 무한한고통을늣기고 단연히집을 나왓든사람이니 죽엇다는것이 그리이상하게 생각되지도안슴니다 그는일본의 유도무랑(有島武郞)씨를 만히 숭배하든청년으로 성격과사상도 그와비슷하다할수가잇스며또한져디도방사한뎜이만습니다그러고보니 유도무랑의 정사사건과방불하다는생각이 남니다 김군은 칠월구일에 동경으로건너가 잇스면서 자긔집은 한푼도가져다쓰지아니하고 오즉 자긔힘으로지나가면터인데자긔가뎡에대하여서는끗업는불평을품고잇섯습니다』하고말하며 또한윤심덕양에대하야는역시 그를잘아는리뎡씨는말하되『서울을 처음떠날때에 그의태도를보아서는참말의외임니다 일본가서 주인집에편지를할때에도 그저 락관뎍으로『미야게』를만히사가지고나간다는등의말만이엇고또한나올때에는『피아노』를썩조흔것으로사가지고 나가겟다고하야 원도를옷고잇는듯하엿는데그것참뭇박집니다』하더라

『天地間어데를가든지 밥은사먹는身勢』

心境을말하는尹孃의最近便紙

당신들가는곳은산인가바다인가 나에게는산도바다도필요치안어

윤심덕(尹心悳)양이최근대판에서 묵고잇는동안에 서울에잇는 자긔의친구에게 편지한것이 잇섯는데그문구(文句)를보면그가세상을얼마나 저주하엿스며 모든인간을얼마나악마와가치보아오든것을 알수가잇다 아래에 긔록하는것은 그가대판에서 지난칠월십팔일에 자긔친우인 시내모씨에게보낸편지의일절이다 『上略나는대판(大阪)서 이십칠팔일쯤동경(東京)으로가겟소이다 동경가서 자미가『쇄』쏘다지듯하면두어달놀고오고 ……나는 어듸가든지 밥은사먹는사람이니가말이지요다구상이되에서든지자미만잇스면 오래머물겟소이다 당신들은 어듸로가시요 『何處へ行クカ』ハ……ドウセ山カ海デセウ ハ山モ海モ不必要デスカラ』어듸로갈려요 아모래도산이나바다겟지요? 나에게는산도 바다도필요치아니하니까 ……동경가서두분이여름동안에만두자미를보시고……下略』

◇……자긔성격을말하는윤심덕양의필적……◇

恒常所願이 伊太利留學

◇형윤심성녀사와 어머니김씨의말◇

윤심덕양이투신정사를하엿다는 소식을가지고 시내서대문뎡(西大門町)일뎡목칠십삼번디 그의 본집을방문하니그집에서는별로히놀라지도안는듯이침착한태도로윤양의형윤심성(尹心聖)녀사는말하되『그럴리업슬줄 암니다 아시는바와가치 그애의 성격이 남자와가치 매우활발해서 집에잇슬때에도 내가무엇을 근심하는빗이잇스면 오히려나를 위로하며 웨그러케침울한생활을 하느냐고항상말하든터이며 이소문이잘못난것이나안인가함니다 지난달십칠일에동생성덕(聖悳)이와가치 집을떠나갈때에도 자긔옷을담북다려서워잇는련관에가져다두고 떠나갓스며 또한최근에는케동생미국가는것이부럼워서저는영이를모르니가미국은잘수업서도이태리(伊太利)를가서 음악을더연구하야한번세계뎍성악가(世界的聲樂家)가되여보겟다고나더러재작고이태리를보내달라고졸라대서나도 그곳에 보내줄가하는생각까지도먹고잇든터입니다 그러하든애가 자살을할리치가잇나요』한다 긔자가다시 『그러치만부산으로 그사실여부를알아보시는것이 엇덜가요』하고참고의말을들려준즉 『글세요 과연죽엇스면 엇절수업겟지요 시리자는것은 차저야 하겟지만 귀이들조하서죽은것을시테는차저서무엇하겟슈』하고 모든것을단념하라는듯한 여던가숨어잇는 비감한 태도를보히는데윤양의부친윤호병(尹皓炳)씨와모친김씨(金氏)도『성덕(聖悳)』이가여긔서 떠날때에 장학자금증(奬學資金證)을못가지고갓슴으로그것을보내라고편지를하엿기에지난이얼에 붓쳣스니 그것을바다가지고오늘(오일)에야떠날줄압니다 쳐동생이 떠나기도젼에심덕(心悳)이가도라나올리치가업스니 죽엇다는말을 그대로밋기가어렵슴니다』하며 반신반의의태도를가지고잇더라

遺書發見

모다두가지로

김우진윤심덕량인의 정사한데 대하야 그유서도 발견되엿는데 하나는 선장에게『자긔네가족은 뒤에자긔네 행구는모다 업새여 달라』는간곡한부탁이엇고또하나는 그친족들에게하는 것인데 이것은 목하부산서에 보관한중으로 그가족들이 오기전에는 누구누구에게나보히지안으며 비밀에 부치는중임으로 내용은 알길이업더라

延專生押送

경북안동경찰서(慶北安東警察署)에서는 [illegible] 경성연희전문(延禧專門)학생 [illegible] 을 [illegible] 경성으로 압송하얏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은 비밀에 부침으로 알수업스나 아마륙십사건(六十事件)에관게된듯하다더라(안동)

絕島風情

◇對馬島訪問◇ (三)

◇

좌수나에는 포구를중심으로하야 그부근산촌에까지 오백여호에삼천여명이산다고한다 토디가산악뿐이라농사라고는 고구마를심으는데불과하고 산업이라고는 고기를낙는것이주업으로 주민의생활이유복하지못한듯 것초로보아서도 알려니와 매년조선으로부터 이천삼백석내외의 백미를수입하야량식을보태며 주식은고구마라하니 일반의생활뎡도를 가히짐작할만하다 ◇

深邃한山谷間에 同胞의炭竈茅屋

水陸巡訪第二隊二班 比田勝에서萬年壽人

대마철도등에서도외로운산골재가수림새에 숫굽는동포들의초막을보고희구의감이깁허

우리배는 백미오십여석을부리고 재목약간을실은후 두시반에좌수나항을떠낫다 울울창창한산천의경개는 보아도다하는바를 모르겟는데 한굽이를도라산골재기 잣나무욱어진새로한간의 초막이발견된다 저것이무엇이냐고 승객에게무럿더니 조선인숫굽는사람의 초막이라고한다 고국을멀리떠나해중월도족에서도 외따른곳에와숫굽는동포의집을바라보니 고우친척이나만나보는듯이 반가운생각이 조샤난다 압정은멀고해상에뜬 몸이라 차저볼길이업스되좌수나촌부근산주에 저러한동포가 이백여명이나산다하니 날밝은날 멀리바다뒤로고국강산의그림자를바라볼때에 저들의비애가얼마나할가 더욱고국으로오고가는배가 발아래를지나갈때에야ー 당장숫굽을구어황금을숫가치엇는데기로 무엇이반가울것이라 ◇

넷날은 조선사신의당당한함대가 좌수나에도착하엿슬때는의례히풍악을잡히고 솔불떠든고시를읇허 안착의깃분잔채를베풀엇다고한다 그럴때마다수백리밧게서까지 구경군이밥붙차가지고모혀드러 조선나라의놉한위풍에감복안하는 사람이 업섯다하거늘 무상한세상이라 산천은그것이로되 사신은흔적도업고 오직숫굽는잔민의외로운그림자가 산간에빗칠뿐이니 울적한회포가 더욱깁허 간다 ◇

비어(鯡魚)(날치)라고하는 묵비행긔가치생긴고기가 배에놀라서 휘휘나려가다가는물속으로쏙쏙드러간다 그것도귀관이려니와 우리배가엄원(嚴原)으로가는도중에 악포(鰐浦)라는 포구가잇다 좌수나에서괴가지삼십여리 『포구가커』은곳임으로들르지는안하엿지마는 악포에서한오리쯤되는해중에 무수한바위가 해중으로오리기리나 쑥내민곳이잇스니 이곳이대마해로중에 가장험난한곳이라한다 나무하나업는새빨간바위가흑은놉고 흑은낫고흑은버티고흑은웅크리여 사나웁게생겨잇는데 구슬을바스는듯 그처참한광경이심담을서늘케한다 이러한난혐업으로동대를세운 이떼에도 한번배질을잘못하면 가루가되여버린다고하는데 이백년전넷날숙종(肅宗)째에 조선사신의 역관한대석(韓大錫)도 이곳에서항몰을당하엿다고한다 국사에순직한 천만의망령을조상할 사람은 오늘에이르러서는나하나뿐인가

年年歲歲風波에變形한 比田勝의洞窟

鬱蒼한老木白日도暗黑

창초한풍치가잇는풍포를지나서 동해의승경을차례로비면승도착

창초한풍치는 좌수나보다낫다는 풍포(豊浦)를 바라보고우리배는 다시남향하기를시작하니대마의최북단을 지난것이다 산악의웅장함이 좌수나근방보다 더사나워보이고 수목의유창함이 더욱깁허보이니 동해안의지대가 서해안보다도준험한것이다 바위라는 바위 산이라는산은 개벽이래 몃천만년을두고 동해의사나운물결과 거친바람에 시처고파이여버려집가치 굴이뚤리고 구멍이 파이여 바람에밀린 물결이드러갓다가는 폭포가치 쏘다져나오는장관이라니 이로형용할수가업섯다 이러한승경속으로 삼십리를 항행하야바른편으로 구름속에뭇친 서박포(西泊浦)의원경을 그림가치 바라보며다섯시반경에 비뎐승(比田勝)항구부두것가히닷을주니해는아직 그리기울지를 안엇스되 로목이충텬하야 석양의긔분이 몸부에가득찻섯다 (계속)

◇…비젼승항구

貞友聯盟會員關係와 第二儒林軍資募集事件

雙方으로活動하는大邱警察

진주련맹사건과데이유림군자모집사건으로 눈코를뜨지못하고이리저리날뛰는대구경찰

대구경찰서 에서는별항 사건으로활동하는동시에 또다시 데이뉴림단 사건을극비밀리에 각방면으로수색과 검거의손을 쌧치어대활동중이라는데 이제 그사건의 진상에대하야 모방면으로부터드른바에 의하면 첫재유림단사건은경부선약목(若木)역아헤거주하는 부호장보(張葆)이서데(?)모가뎡(?)인자모가돈을달내야잘주지안는다누혐의로 장모가군자금 모집에관련이잇다는 투서를 경찰당국에하야그것을 단서로친권과 부호장모의부자(父子)를검거하는동시에작보와갓치각처에서여러명의유생이관할한사람들을검거하야취조중이라는바그들의군자금모집이란것은지금으로부터수개월전즉상해에서리귀○(李貴○)이란가정부원한명이권긔관계자몃명을차자먼저감복을식힌뒤에 군자금모집방법으로는 권총한자루를 가지고 모모부호의집에차저가서는 그권총을 좀맛겨두면 조곰잇다가 곳차저가겟나하야 맛기려하면 부호가겁을내여 맛지안켓다하며 마즈막에는 돈얼마주기까지하고는 맛하두지만 아니하려함으로 그긔회를타서 돈을어느정도까지 올리어맛고는 하는방법으로 군자금을모집한것이라더라

軍資募集方法은 富豪에拳銃任置

부호에게권총을억지로맛기다 돈자를아니하면군자금을청구

대구경찰서에서는얼마전에대구(大邱)부내모주의단톄의회원칠명을 검거한후사건의내용을비밀에부치고방금엄중취조중인데 그사건의진상을듯건대동서에서는동부내진우련맹(貞友聯盟)회원신재모(申宰模)방한상(方漢相) 우해운(禹海雲)마명(馬鳴)안종진(安鍾璡) 뎡휴도(鄭烋道)등여섯명인데 이들을검거하기는 지금으로부터 약이십여일전으로 검거하야 즉시이십일이상삼십일 이내의 장긔구류처분에붓치어 신재모와 방한상은대구형무소에 안종진은 헌병분대에남어지는 동서류치장에 각각 난호아 구속하고 엄중취조중이엇섯는바이것의단서는그전에소위『대론』단이나엇지니하야세상을 시끄럽게하든 안달득(安達得)(자금은모귀중독자)이란자가도적질을하고 붓들니어 경찰의신세를 지는가운데 횡설수설한데서 진우련맹이엇지고이엇지 나한[illegible]

◇휴지통 ▲파출소습격범인을 놋처버린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엇덕케엿든지엇지당하리고잇든판에 ▲작일밤은 약솜예장도 잡아두엇다는 뎐화를밧고『익키이것이 웬떡이냐』하는 그새로운이도산이(二名)남모(南某)의집으로쉬슬이 푸른개달려갓섯다 ▲그집에서는 평복(便服)몃자를 쳐취한 어떤놈을데하는중인데 돌연히순사가 달려드러 강도가어느놈 이냐고 날뛰엇스나 엇는강도가 어듸에 잇나와? ▲형사를 켜기와동대문서와 무슨 연분이잇는지 이월에도 사실불합고보니 그집에잇는 어린아회가 도적이면 모다강도로만 알고면 화를빌며 가지고 고갓치암칙한[illegible]

富豪脅迫한青年 警察部에被捉

경찰부에서데포하야취조중

경긔도경찰부 고등과 긔밀계박(朴)경부는재작삼일오전여섯시경에 시내락원동(樂園洞) 방면에서조모(趙某)라는청년을인치하야 방금엄중히취조중인데 사건의내용은 비밀에하나 듯는바에의지하면 시국을 표방하고지내에잇는모부호를위협하야금전을강청한것이라더라

所謂亞族大會와 在日各團의反對

일본각디에산재한 조선인으로조직된 이십삼단톄는지난칠월삼십일에 각단톄의의견이일치되여 소위아세아민족대회(亞細亞民族大會)에대하야 반대하는결의를하엿다는데 그결의는

一、우리는팔월일일에당긔(長崎)에개최되는 아세아민족대회를부인함

二、대회의긔만뎍(欺瞞的)내용을폭로식히기위하야 성명서를발표할일

등이라하며 참가한단톄는아래와갓다더라(동경)

▲東京勞働共生會▲關東一心會▲東京合同勞働組合▲東京朝鮮勞働同盟會▲東京朝鮮勞働組合▲神奈川縣朝鮮合同勞働會▲小樽朝鮮勞働組合▲山梨縣朝鮮勞働組合▲大阪朝鮮勞働連株會▲大阪朝鮮勞働組合▲大阪西成朝鮮勞働組合▲大阪今福朝鮮勞働組合▲大阪堺市朝鮮勞働同志會▲大阪朝鮮勞働同盟會▲大阪鶴町朝鮮勞働會▲大阪浪速朝鮮勞働組合▲神戶朝鮮勞働組合▲京都朝鮮勞働組合▲東京一月會▲東京三月會▲在東京朝鮮無産青年同盟

會議의梗槪와 所謂提案內容

아세아민족대회 데이일은지난 이일 오전아홉시에개회하고위원을선거한결과 중국(中國)네명일본(日本)여섯명 인도(印度)두명 비률빈(比律賓)한명이선거된후 위원회를열엇다는데 각국위원으로부터데출된데안은

◇中日委員提案 ▲一、亞細亞通信機關設置▲二、亞細亞橫斷鐵道建設▲三、亞細亞會館建設▲四、亞細亞金融機關設置▲五、亞細亞工業機關設置

◇中國側提案▲日本政府의中國勞働者及商人入國取締命令을即時撤廢할事▲六、亞細亞大學院建設

◇日本側提案▲八、全亞細亞民族의通用語를決定할事▲九、國際聯盟에對하야人種平等案通過에對하야一致協力할事

◇中日提案▲一〇、全亞細亞民族을象徵하기爲하야旗又는『마ー크』를만들일

◇日本提案▲一一、[illegible]

등으로 다시총위원회를열고심의한결과 데일호데안은가결, 데이호데안은보류, 데삼호 데안은가결 데사호 데안은보류를한다음에 중국측으로부터데출한이십일개조 철폐문데는구긔관을설치하기로하고 인도독립문데는봉오하다고 론의치아니하엿다하며 데삼일에는아세아운동공로자로『아코카너』대좌왕『페르샤』왕『라ー킨』대통령『케말파샤』 인도시성(印度詩聖)『타골』일본두산만(頭山滿)씨등을표창하기로하고 폐회하엿다더라(당긔뎐보)

廿一個條撤廢問題로 日本代表가辭職

一時騷亂하든大會議場

중국측의이십일개조철폐데의로화가난일본대표중세명은사직해

아세아민족대회(亞族大會)데일일은 지난일일오후세시에일본당긔(長崎)청년회관에서 개회될예뎡이엇스나 세시부터겨우준비위원회를열엇는데 석상에서중국대표등이 이십일개조철폐문데를본회에상뎡(上程)식히기를주장한결과 일본대표사이와의편이충돌되야 일본대표 측원(則元)삼(森) 당본(長崇)삼씨는일정사직하는등풍정을이루워 오후다섯시이십분에야 회의를열엇섯다는데 중일(中日)위원의데안규측원안(規則原案)을각국위원에게일임하고 여섯시에폐회하엿는바각국대표는 오십여명에달하엿다더라(당긔뎐보)

어린이 작품

○봄 安岳明進學校三年 金文鉉(一三)
봄이왓네봄이왓네
갓든봄이다시왓네
산에풀도다시오고
뜰에풀도다시왓네
아해들은바구니들고
나물캐러다시왓네

○도세색기 龍山 李虔爾(一二)
조고마한도세색기
눈갓치힌몸
앵두갓흔어엿분
눈알반작거리며
요리조리뛰놀드니
어언간밭에서자라서
색기를열마리나
나엇네

○가마귀 安岳明進學校二年 金鍾榮(一○)
가가귀아가마귀야
시꺼멋한가마귀야
귀녀석가되엿스니
네집으로갈나니?
귀녀석가되여서도
네색기는엄는데
소리조흔가마귀는
제집으로갈나나

○쌈 元山少年會員 崔永吉
봉선화팔쎄간
내동생은
고요히잠자는때나와
형님형님하길며
우길아하고소리치며
눈물떠보니
사방은고요하고
벽에걸닌시계만
쪄쎡쪄쎡합니다

○내책상 開城第一公普二年生 金完洙(一○)
삼년전에 우리아버지
사다주신 내책상은
학교갓다 오기만하면
결네빨아 소제하고
습자쓰고 놀다가는요
식커머한 먹방울을
이곳저곳 또뭇처서요

○범나븨 沙里院鄕鹿學校四年生 金鶴齋(一四)
나븨야 범나븨야
우리집 안뜰안에
놉다란 집웅넘어
엇더케 날너왓냐
너올줄 잃엇스면
꼬흔옷 더섯슬걸

○두루미 安岳明進學校二年 朴信奎(一二)
우는저두루미
뚜루뚜루울하고
놀고놉흔데로서

머리와벼리는싯커하고
몸보쌔한
백서리가나리엿다

○가마귀 馬山午東洞七一 李元壽(一五)
가마귀한쌍
울고갑니다
저편쪽숲으로
날너감니다
◇
아들도딸도
다일어버리고
불타는서(西)쪽山
네집을차저
가마귀한쌍
울며감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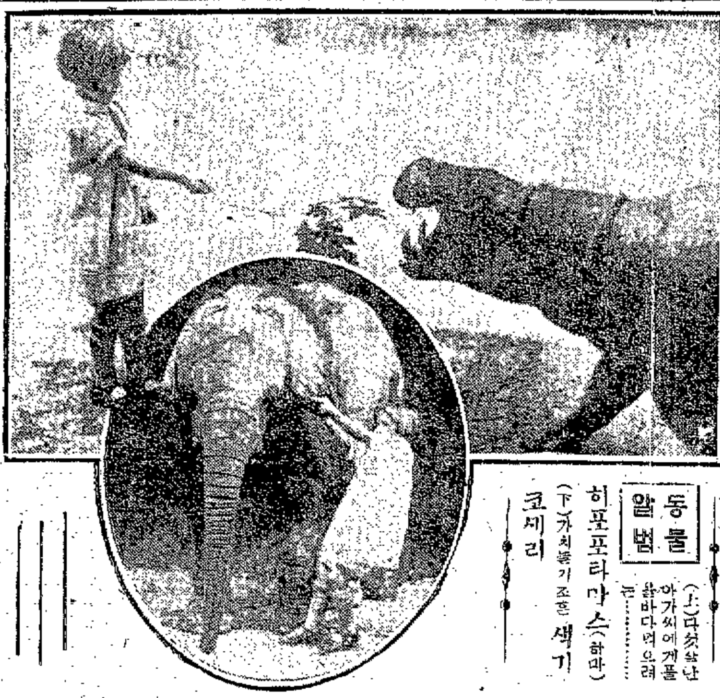
○뎐선대 澈洞公普一年 宋明淑(八)
쓸쓸하게서서잇는뎐선대
앵〃쳐도가만히잇소
밤길로찰러도가만히잇고
장도아니자고가만히서서
비가와도아무말도아니하고
서서잇는뎐선대

○여호 安岳明進校一年 柳應七(一○)
여호가우네
깽〃깽
여호가왜우노
밤은깁헛는데
깽〃깽
마당에는나아가서
놀고십흔데
여호는왜우노

어린이 실과리

아프리카의 맹수산양(五) 사자코세리물소와 싸와서잡는니야기

코쎄리는 여러가지맹수중에가장 령리한짐승으로그동족인하마가큰것과는 비교도아니됨니다 하마는맹수중에가장미련한놈이외다 사오십년전까지도아푸리카 넓은들에코쎄리가만허첫는데 그어름니들어드려고산양꾼이 만히다니기때문에지금은다 쫏기여산속으로드러가이답니다 그러나미련한하마는아직도 사람사는벌판에나와다난다합니다
◇
코쎄리는 령리할뿐아니라 코와귀가 밝어서사람이멀리와도 벌서알아차리고도망 하는고로 잡기가어렵습니다 코쎄리는항상예를 지어다니지만는내외들몸사하야 수귀쎄리단엽니다 그리고 안기를 아조 실혀하야잠잘때도 그굴은다리로웃둑서서잡니다 엇 람헙가가무슨신탐인줄 엄고 드럭가서자다가 밤중에 수번벼락을맛고야코쌔리배빗한줄알고 다러낫다함니다
◇
아시아의 코쎄리는 길을드려서 소와가치 부려먹을수잇스나 아프리카의코쎄리는그릴수도업고 또밧과산림을못쓰게할뿐아니라 그코로사람을죽이는수도잇는고로 대단히위험한놈건입니다 토인들이코쎄리를산는데는 함정을파거나 창으로찔려죽입니다
◇
무스백트씨는 코쎄리 산양살하는토인들다리고 하로는산속으로드러갓습니다 두어시간만에코쎄리떼의발자국을 발견하엿는데 내게암귀가열댓마리와 수컷두어마리나 호숫합니다 먼저코쎄리가 지나갓습즉한곳욱 생각하여가지고 그앞흘질려습니다 몃사람은나무우에올라가고몃사람은 숩속에숨어잇노라닛가 엄마만에 코쎄리떼가오는소리가들립니다 수풀속을닥려가는소리가 귀에요란합니다
◇
그뒤를 뚫아가기를 약삼십분만에 압헤커다란코쎄리가바위염흐로 낫타나는것을보앗습니다 본족 어둡니가 허여케나와쇼니 곳수귀입니다 단방에쏘아서 머리를마치거꾸러트렷슴니다 뒤를이어서 수귀가 또한마리나왓는데 이번에는바로맛치지못하야 번뜻하는사이에둑스벨트씨압흐로 달져들엇습니다 총을련방노하도 소용이업섯스나 가치갓든이가뒤에서두방을노하마칫습니다 코쎄리의가죽을보전하려면 죽는지한시간만에 그것을벗겨야된답니다 토인중에한사람은 엇지조혼지 죽은코쎄리사이우에 올라서서 춤을엇다합니다 (쯧)



동물앨범
히포포타마스(하마)
(上)다섯살난 아가씨에게풀을바다먹으려는……
(下)가치놀기조흔 색기 코세리

◇능금 □川公普四年 方德均(十)

동화 종달새와보리

어느곳에 아조지혜잇는 종달새한마리가잇섯습니다 그종달새는 아족도보리가다ㅣ익기전 파릇파릇한 보리밧한모퉁이에 보금자리를 만드럿습니다
◇
그때는마츰꼿피고종달노래하는아름다운봄철이엿습니다 다른동모들과 날즘행이란모다자미스럽게 노래하고유쾌하놀앗스나이어미종달새는 월십으로 보금자리에잇는어린 자식들을 밥것으로보호하고 잇섯습니다
◇
얼마아니되여그큰밧에잇는보리는종달새의 보금자리에잇는 보리보다 훨!신몬저익어서보여도조흘만큼되엿습니다 그러나종달새의색기는 아직도그보금자리를 떠나서자유스럽게날너다닐만콤 크지는못하엿습니다종달새는 하로밧비자긔색기를크게길느지아니하면 안되겟다고 생각이나서매일먹을것을 구하러단기엿습니다
◇
어느날 종달새는 자긔자식들에개향하야 『내가업드래도만일 이밧주인이 그아들을다리고이곳에오거든 그사람들의하는이약이를 잘ㅣ드러두어라 그리고 우리는 그말나오는형편을보아서우리집을 옴기지아니하면아니될형편이기의말이다』
이러케부탁을하고그어미종달새는그만밧그로 날너갓습니다 마츰그리자마자 밧ㅣ주인은그아들과가치 그곳에왓습니다 그리고그아들에게향하여 『이보리는벌서 익엇구나! 그리면너는 동모들집에가서래일아츰브터 주부러보리를 비여달라고부탁을하고오너라』 하고말한뒤에 집으로도라갓습니다
◇
얼마아니되여어미종달새는먹을것을잣득허뭄고 도라와본즉 자식들은 대단근심스러운얼굴로 잇섯습니다 그중에한마리는어미에게
『앗가이밧주인이 와섯는데래일아츰일즉부터 다른동무들에게보리를버혀라고하고 갓습니다』하고말햇습니다
어미새는 이소리를듯고
『이밧주인이이러케만 말햇스면우리들은 그러케급히자리를 옴기지안어도 관계찬타 그러나래일또와서 무어라고하는가 잘알어채여라 아조그러케근심하지말고먹을것이나 잘먹고잘크거라』하고 말햇습니다
◇
그색기들은배부르게 잘먹고안심하고잣습니다 얼마아니되니 밤이새여 아츰이되엿스나주인동무들은한사람도 보리를비려오지를아니하엿습니다 어미종달새는 먹을것을구하려 또날너갓습니다 그후에주인은밧을 둘너보려왓습니다 그리고『동모들은밋을수가업다 이제는친척에게가서 어쩌와 갓치부탁하고오너라』
하고자긔아들에게 부탁하엿습니다
◇
보금자리에잇는 색기들은 그말을듯고엄마놀내여 어미새가 도라오닛간곳주인은친척되는사람들에게 부탁을하엿습니다그런고로우리는다른 곳으로 옴기지아니하면안될것입니다』하고말햇습니다『아니다너희들은안심하고 자거라아직은집을옴기지안어도조흐니……』하고잇넛습니다 어미종달새가 말한것과마차한가지로 다음날아츰이되여도친척이라고는 한사람도 보리를버히려 오는사람은업섯습니다
◇
주인은그아들과 가치또밧을둘너보려와서『내가한심못하엿다 나는가만잇고 다른사람에게며구나밋을수도 업는부탁을한것이도모지내의잘못이지…… 내일은내가하지 아니하면 안되겟다래일은 우리가낫(鎌)을가지고와서이보리를비여야것다』하고말햇습니다 어미종달새는 이말을듯고『이번에는 꼭옴겨야되겟다』하고말햇습니다 그리고 그색기들을조흔곳으로옴기게하고 나종에는보금자리를옴긴후에 다른곳으로평안히날너갓습니다(김태오번역)

까치 (동요) 남주

울타리에곱허안즌
까치야나라와서
부억문커다보고
한번만울어주오
초닷은서울아케
한번왓다가신후로
소식이막혓스나
어너한숨말도마오
삼월도보름이라
제비도자쥬왓다
서울아저씨한번오게
까치야울어주오

중앙소년회 소식일속

시내사직동(社稷洞)중앙소년회(中央少年會)에서는 다방소년소녀단데와 련락하기위하야 각디로 특파원을다음과가치파송한답니다
仁川方面 ― 李元在金敎尙兩君八月五日出發
江原方面 ― 朴來源君七月三十日歸着
元山方面 ― 李大雨君七月二十三日發
역시 그회에서는 림간강습회를 사직공원안황학뎡(黃鶴亭)에서 팔월일일오전열시에열엇는바 구십여명의출석이잇섯스며 교원은다음과갓답니다
▲監督金詩蓮▲敎員李鍾烈鄭海德金敎尙李顔中李允從李守在

가뎡고문

마음가운데괴롬을가지신이 해결치못할사정을가지신부인네는 주저치말고 물어주십시오 관계가되는일이면 무엇이든지 대답하여드리겟습니다 당면한문제를 어느때든지 간단하게 쓰셔서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하셔도좃습니다

신랑될자의청혼
(문) 삼팔세의처녀올시다K라는엇던사무원과 약혼이되엿는데 결혼식날에 신랑이아나옴으로 알아본즉 본처가잇습니다 저는죽어도 그리로가고십흔데부모가허락을아니합니다 (청주김복동)
(답) 본처를두고또다른녀자를롱락하는남자에게가서 과연행복이될가요 잘아리라말하고다른곳으로가는것이 조흘뜻합니다(C)

생활이곤난하야
(문) 커는아들형제가잇는데또 래긔가잇습니다 지금삼개월인데 생활곤난으로남편과의론하야 락태를식히고저하는데방법을아르켜주시요(리○○)
(답) 락태식히는것은범죄상으로죄가됩니다 (C)

시부모가또차
(문) 시부모가본가로또차보내고남편도또한 소박하면서독신생활로지내며 나와사이에는아즉혼인게도 아니하야법률상부부라는증거가업습니다 엇지하면조흘가요(답답한녀자)
(답) 법률상혼인게가업더라도 다른증거가잇슬것이니 그것을가지고소송을 이르키시오(C)

專門大家醫學士宮田先生發見

速되는 淋疾專治藥

藥名 네오지고린(ネオヂゴリン)

本藥은專門大家인醫學士宮田先生이 帝國大學病院勤務中 多數의患者에게實驗한結果로新發明한良藥임으로 急性 慢性의頑固한淋疾에가장速効가잇는 特効藥인故로如何허服한慢性症이라도一個月假量만服用하면반드시 滿足한効果를엇게되며, 服藥後三十分後에는藥効로尿色의 變化가잇슬뿐아니라本藥은좌은尿便가튼동근것임으로 此藥을淸水又는白湯에呑下服用하는데 至極히쉬운키(呑)조흔藥이며 또連續服用하더래도 胃腸이던지腎臟에害는絶對로無홈

◎注意 服用法, 服用量, 食禁其他攝生法等은現品에詳細記載하엿슴으로一覽後服用함을肝要함

◎淋疾의容體 尿道(腎頭)小便出處가간질간질가려워서尿道가각금각금압흔사람濃汁(고름)이나오고小便이자조나오며或은잘나오지안는사람, 陰部가全然히氣分이조치못한사람頭痛症上, 眼後이게삼치려하야지는분은곳本藥을服用하야根治케함을肝要

◎藥價 一五十粒入 金貳圓, 百五十粒入 金五圓 三百五十粒入 金拾圓
●本劑는一日三回二粒乃至三粒式服用함을要함

大日本總發賣元 柴崎仁壽堂大藥房
朝鮮支店 京城府黃金町一丁目大通 電本一六六○番振替京城一四二五八番
東京本店 東京市本鄕區眞砂町電車通
大阪支店 大阪市東區本町一丁目電車通
滿洲支店 大連市若代町大通
附屬醫院 本店支店共附屬診察所를設備하야何人에게든지診察과治療를하오니患者는來店하시오

깃부다 葡萄의조흔술
아츰 希望의피가끌코
저녁 安息의香氣나는
하늘의美祿을 赤玉의
너름에다밧고아볼가……

적옥포ー트와인
赤玉ポートワイン

多福多壽

全世界에有名한부루도ー제는男女老幼의何者를不問하고身體에가장適當한强壯藥이며 本劑를服用하면病者又는虛弱者는心身이共히强健하여질뿐더러血을增케하고肉을肥케하며精力을旺盛케함으로故로부루도ー제의常服者는子孫繁榮多福多壽치안는사람이업다

누구나長壽와健康한身體를바람은一般이오나相互間生活上여러가지境遇에依하야不知未覺에自己의貴한身體를壞하는일이幾何나생기나이다이것을豫防하고이것을補함에는『부루도ー제』를飮用함이最必要하다합니다
本劑는生命을維持함에根元이며最貴한活動의源泉이옵고又人體의榮養을掌하는대血液製造에唯一의材料가되고가장合理的으로써最近科學의粹蒐로된優秀한補血强壯增進劑올시다
病者虛弱者의强健化와健康者의精力增進은『부루도ー제』로써어들수잇나이다
詳細한說明書를請求하시면進呈하게나이다

眞正한補血强壯增進劑 부루도ー제

特長及種類
一、芳香美味로各人嗜好에適當하고婦人과兒孩도好愛하고口味가快함
二、絶對로胃腸을害함이업고食慾을增進함
三、消化吸收를速하게하고血을增하며肉을肥하며營養을盛케하며體力을强壯케함

補血强壯 營養增進劑	單味부루도ー제	小瓶半月分 金一圓	大瓶一月分 金三圓二十錢
神經性 疾患特効劑	아루젠부루도ー제	小瓶半月分 金一圓三十錢	大瓶一月分 金三圓七十錢
腺病質特効 補血强壯劑	요ー도부루도ー제	小瓶半月分 金一圓三十錢	大瓶一月分 金三圓七十錢
健胃補血 强壯劑	기나부루도ー제	小瓶半月分 金一圓三十錢	大瓶一月分 金三圓七十錢
呼吸器系 疾患特効劑	구아야코ー루부루도ー제	小瓶半月分 金二圓六十錢	大瓶一月分 金四圓三十錢

●賣捌全國各地藥店에서販賣함
萬一品切의時는直接發賣元으로注文하시옵

發賣元 本舖 藤澤友吉商店 大阪市東區道修町二丁目(振替大阪一七四一番)
京城支店 京城府西小門町 振替京城五五八九番
東京支店 東京市日本橋區本町 振替東京一五八九番

地方論壇

市區改正問題

安城 一記者

◇昨次本紙에報道한바와가치安城市區改正問題는 滿一個年이되도록 끌어오면서 問題에 問題를거듭하야 興隆만할뿐이오 實現은언제나될는지 아즉도漠然하다한다 昨年九月에當地商民一同이 蔬市場商業自衛策으로 마치峻亢好意로된蔬市場의市區를改正整理하는同時에 停車場으로부터 竹山市場方面으로 直通한三幹道路를新設하야 直接安城郡으로集合되는 物貨를蔬市場으로吸收할目的으로 三幹道路의東方에서 蔬市場에至하는道路와 蔬市場에서 西方으로 安城郡에至하는道路를 新設하야 모든物貨와 旅客이 蔬市場을거쳐서 停車場에이르도록하계計劃을세우고 이를實行할機關으로 安城市區改正期成會를組織하야가지고 事業을着手하든當時에는 그야말로 山을뽑을듯한 氣勢를보이엇든것이다

◇一邊으로『市區를改正擴張하지안으면 蔬市場의商業中心勢力은 現下秩序整然하게形成되여가는 安城驛前鐵道村으로몰녀가고만다』는것을宣傳하야 市區改正에要하는 土地寄附와家屋의無條件撤毀의承諾을 엇기에奔走하고 一方으로는 測量設計를土木當局에 依提하야不時에市區改正이 實現될듯하엿섯다 이처름努力하든市區改正運動은 土木當局과市區改正期成會사이에 道路幅의廣狹問題로互相意見이 一致되지안어서 土木當局은 測量設計를해주지안켓다고紛糾하게되고 下水道新設費補助가 圓滿하되지안케됨에 期成會는 委員을派遣하야 土木當局과 道廳에陳情하야 期成會의意思대로 道路幅을作定하게되고 三千五百圓의下水道新設費補助까지 엇게되야 期成會는 크게成功한것을關係者에宣傳하엿든것이다 그리하야 市區改正은 何等障碍업시될것을一般이豫期하엿든것이다

◇吾人은일즉이本欄에서道內有數한安城市場의 市區改正에對하야 當局者의誠意엇슴을論하는同時에 當地商民이莫大한犧牲을앗기지안코 土地와家屋을寄附하고 其他의費用外지各擔하야 市區改正擴張을期成하라는 그努力을感歎한바이엇섯다 그러나今日에이르러 期成會나商民一同의態度를보건대 前日로 모든準備가 못나고지금은오즉家屋을撤毀하고 市區改正을實地着手하야할時期에當하야 關係者의意思不一致로 다시 市區改正問題는依然히問題로 잇다한다 互相主張하는바의要點은『當初에期成會의協定은 市區改正을因하야土地를寄附하며 家屋을撤毀하게되는當事者와 此와反對로土地寄附家屋撤毀等의損害가업시 市區改正으로因하야 利益만을受하게되는受利者와의 當害를區分하야 受利者도 相當한 寄附金을捐出하야 多額의當害者에게는 被害의程度를따라 分配하기로決定되엇든바 지금와서는 受利者又는少額의當害者가 寄附金을捐出하자는側과 家屋撤毀를主張하는側이 互相固執하게되야 市區改正은困難하게되엿다』는 單純한問題이라한다 다시말하면 兩者가 共同實行하자아니하면못할 運命을가지고잇스나 先後를가지고 서로미루는때가나지못하는것이다 다시 愚하는바에依하건대 이先後를가지고닷토는것은 公正한자리에서서 어느것은 먼저해야된다는것을主張하는이가적고 寄附金을내어야만 家屋撤毀를해야될 義務를가진 家屋撤毀를 먼저해야된다主張하고 家屋撤毀를해야된다는人士는 寄附金을 먼저내어야된다고主張한다고한다 關係商人人士는寄附金을 먼저내어야된다主張한것이아니라 期成會幹部中에도各其個人의利害를압세워가지고 區區한意見으로互相紛糾하는 人士가적지안타한다 公共的事業에 私利를압세우면 成就되지안는것은 말할것도 업는바이다

◇吾人은是非를말하고저안커니와 어느것을먼저하든지 市區改正은期於히 實現식히고말아야할必要가잇는것만은 말하고저한다 已往市區改正을實現하기에必要 不可缺할일이라하면 兩者中에 어느것을먼저하든 公平한態度로 公共事業이란것을생각한다면 今日의固執은 抛棄될것인줄로생각한다 이區區한固執이圓滿히解決되지안코 이번에市區改正을實現하지못하면 下水道費補助金三千五百圓을 엇지못하고 그러고 安城을爲하야 쓰지못하고 安城市區改正은永久히可望이업슬것이며 이외에目下鐵道當局으로부터 가존便宜를어더가지고 秩序잇게形成되여가는鐵道村에게 商業勢力을빼앗기고 蔬市場의商業界에는一大致命傷的 打擊을받게될것이다 다시 一言코자 하는바는 道當局者가 모처름安城을爲하야 支出한補助金을返還하는일이다 昨年度에는安城鎭川間道路修築費로 六千八百圓의補助를바덧다가 郡廳의失態로返還하여버리고 鎭川街道는다시修築할 方策이업게되지안엇는가 市區改正에對한下水道補助金도 이를再演하게될념이 가잇스니 安城人士의體面은그만두고라도 安城의施設은갓가지로 못갓치되지안는것을생각하면 慨歎을禁할수업다 安城市擴有志諸氏여! 다시一考하라

水害應急修理費 地方費의關係豫算

◇國庫는現在殘高一萬圓

旣報와如히水害復舊費要求에對하여는目下被害各道에서被害調査中인데

京畿道
道路 八六〇、八三〇圓
修繕費 四九六、〇〇〇

以外에는아즉各道에서는要求하지아니하엿스나 應急修理키爲하여는各道가다ㅡ各各至急經費의配慮를懇請中이라는데 其被害程度及要求經費는左와如하다더라

◇忠北
一、被害狀況
潘灘橋假橋一、槐岩堤、笑湖川及島川堤防缺潰
公忠線橋梁二、道路深堀二、暗渠二、道路缺潰三三
二、修理
潘灘川假橋其他 一五、〇〇〇
新堡假橋 五、〇〇〇

◇忠南
一、被害狀況
天安大田線一等道路、萬年橋
天安洪城線驛村橋一部、錦江潛水橋流失
二、修理
道路 二〇、五〇〇圓
水道復舊 二〇、〇〇〇(補助)

◇慶北
一、被害狀況
沙離橋袖一、暗渠改修道路二
沸越改修道路二、水拔一、其他不明
二、修理
道路小破

◇江原
一、被害狀況
京春道路、横城橋流失、
二、修理
道路復舊 五、〇〇〇圓

◇平北
一、被害狀況
道路橋梁에被害不少
二黃嶺橋、山月橋 一〇、〇〇〇

◇咸南
一、被害狀況
土留數個所、橋梁一、法面二〇
二、修理
道路 五六、〇〇〇
城川江 八、二〇〇

그런데右와如한應急修理費要求에對하야는 大藏大臣에게提出하야 勅裁를經치안흐면不能하다는일로 應急의用에는쓰기어려우며 또今後에提出될水害復舊費의 要求를하는것으로 今回의것은總督府에잇는修繕費及地方費豫備金을가지고 此에應하게되엿슴으로 따라國庫로부터交付될것은極히少額이라더라

가、國庫修繕費 約一萬圓(現在)
나、右被害道의地方費豫備金道路修繕費는左와如하다더라

	◇豫備金	◇修繕費
京畿	二九四六二圓	一五四四一七
忠北	一二三一九	四〇七八一
忠南	二五〇〇〇	一〇八一七七
慶北	五〇〇〇〇	四七〇二一
江原	三九〇〇〇	五二一〇〇
平北	二三〇〇〇	八七七二〇
咸南	二〇〇〇〇	六二六七〇

延安가는 遠征團組織

江華本報支局

本報江華支局에서는遠征團을組織하야 延白郡延安邑外지訪問할터이라는데 出發은八月七日午後二時中津發第三江華丸으로가서 同日午後十時에延安邑에到着하야 一泊한後翌八日에該地青年과庭球試合을한後에 夜間에는講演會를開하고 九日朝에歸着할터이라는데 參加志願者는八月五日外지江華支局에會費三圓을添附하야申請하라더라(江華)

留學生懇親會

京城東京留學生

開城에서東京에留學하는學生으로組織된松京學友會에서는 夏期休暇를利用하야 여러가지事業을計劃한다함은旣報한바와갓거니와 第一着으로學術講演會를去月二十九日에開催한後에 또今月三十一日下午三時부터貞和女子普通學校敎室을빌어서 留學生懇親會를開催하엿다는데 出席한會員은東京留學生十二名과京城留學生十五名의多數로 大盛況을이루엇다는바 이會合은只今까지에東京留學生과京城留學生이서로長久한歷史를가지고 또그나아가는바方向이서로가트면서 일즉이한자리에모여뜻잇는握手를하여보지못하엿슴은 學生自體로보든지 또는우리社會의立場에서보든지 매우遺憾된일이라하야 두곳의留學生은서로만나 期待와抱負를가지고會合하야 그席上에서도우리社會를爲하야 奮鬪하자는懇談이長時間잇슨後 茶菓의饗應을맛치고下午四時半에散會하엿다더라(開城)

自由鐘

◇投稿歡迎◇ 一人身攻擊이나 地方에局限된問題又는것은一切取扱치안코 可及的時事를歡迎함

裴華植孃의自殺

記事를讀하고

◇文化가發達함을따라世上에는 自殺하는者의數爻가 늘어간다 해마다 新聞紙三面記事는 學者가自殺報道欄이라고하여도 過言이아닐만큼 自殺記事로滿面이다

◇文化의發達이란果然人類社會의生活을 圓滿케만하는것이아니고 어느點으로煩雜化식이여 民衆의精神이 亂調로 가지못하고 羈絆을失하야 放縱하는 例가不少하다

◇即生活困難으로自殺ㅡ精神上苦痛으로의煩悶ㅡ其他여러가지現實은悲觀을呪하고 自殺의길을밟게된다 이런自殺事件을部是社會制度의 不合理라고拱手傍觀하며 漫然放置할것인가?

◇或은이것이社會制度의不合理가生한悲劇이라고하야 現社會의罪로 미러던지고過渡期에處한靑年男女된것만을 不幸이라고할사람도잇슬것이다

◇裴孃의自殺은決코利己的 實現不能으로만 看破할수업슬것이다 女子로서의使命을다하려하엿스며 舊制度의因襲에서 벗어나오려고 無限이도努力하고 時時로 含淚憤慨하기를마지안튼것이고 在來의舊道德과 싸우다氣盡하야 悲慘이도黃泉의孤魂이된것을 醫師의一人筆者로 어린그의魂을爲하야 數行을 쓰지안을수업다

◇裴孃은相當한門閥을가젓스며 在來의相當하다는 家庭으로 道德原則의 忠實한奴隸이엿다 裴孃의죽음의 原因이 거긔서 單純하다 하면 이를奴隸들의鐵鎖에뛰여나오려다못하야 結局은죽음으로最後外지싸왓다고보겟나

◇筆者는그의無慘한最後를弔하는 反面에朝鮮社會의딸가진 어머니에게反省을求하고십다

◇新時代의曙光은全世界에빗을發하엿스며 覺醒의曉鐘은벌서우리들의鼓膜을 울니운지가 날이만엇다 그리하야世界의大勢는激變하얏스며 制度는革新時期에들어갓다

◇이런말은별서냄새나고쎅은말이지만 아즉도 從從新舊의衝突로의慘劇을 演出케하니 이런말이나마 子弟가진舊道德의思賓한鄕土人士들에게 또다시말아니할수업다(公州玉順語)

巡迴探訪(卅五)

==釜山地方大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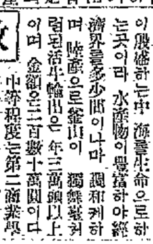
釜山 一記者

釜山은半島의東南端에位하야 西北은連山을擁하야 朔風을防하고 前面에는牧島가橫在하야 海風을遮하며 暖流가圍繞한天惠의良港이다 朝鮮의第二大都會地로 東亞의關門인同時에 歐亞를連絡하는鐵道의 起終點이다 物貨의輻輳와 交通의便利는그의比가드물며 人口는一〇五、五六四人中 朝鮮人이六三、九三〇人이다 아가치 一割五分以上이外人보다多하나 그러나商工權이나 物貨界로는零이라할이可하다 釜山으로는商工業이殷盛하는中 海를生命으로하는곳이라 水產物이相當하야 經濟界를多少間이나마 潤和케하며 陸產으로釜山이 獨無對하며 活牛輸出은 年三萬頭以上되여 金額은二百數十萬圓이다

中等程度는第二商業學校가잇슬뿐이오 初等敎育機關으로는四個의公立普通學校와 五個의私立普通學校와 五個의男女夜學과幼稚園二個가잇다

界育教

◇私立日新女校 距今三十四年前에 英國濠洲女子傳道局에서 처음으로朝鮮에宣敎師를派遣하엿다한다 그當時女宣敎師로맨디쓰孃이와서 學校가무엇인지 理解도잘못할그때이라 孃은朝鮮八子女의敎育에留意하야 草家四五間을빌녀 七八人生徒를收容하고 簡易한敎育을授하엿다한다 伊來學生이漸漸增加됨을따라 四五間의草家로는견될수업섯다 十餘年前에 新台里總督府의 絶勝한곳에 下地하고 煉瓦二層의新校舍를建築하엿스니 곳日新女學校現在校舍이다 一九一四年에認可를엇어 普通科四學年과高等科三學年制로敎育하엿다 그러나向學熱이高한五六年前부터 校舍의狹隘를感하야 高等科를釜山鎭城內에 假校舍를新築하야移轉케하고 同時에新敎育令에 依하야 普通科四學年制를六學年制로變更하엿다 三十餘年의長久한歷史를가진 同校는만흔英才를敎育하엿다한다 그러나現高等科는 母校所在地를떠나 東萊로移轉하야 東萊日新女子高等普通學校라는 門牌를부치게되고 普通科로不遠한將來에 完備한新建築을하리라는데 經營은濠洲女傳道局에서함으로 經營難與否는 絶對로업다하며 同校의將來는益益發展의域에進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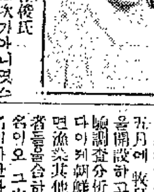


私立日新女校長衛大恩孃

◇牧島義塾 四年前一千九百二十二年春에 當地有力家이오 同義塾長인 金溶璂氏外여러분이 就學키難한兒童을爲하야 同義塾을設立하엿다 以來數次의經營困難에 陷하엿스나 執拗한金溶璂氏의 不斷의努力으로今日外지 維持하야왓다

◇私立草梁普校 一九二二年二月에 當地有志李根昌外諸氏發起로 私立改良義塾을設立하엿다가 同年九月에草梁私立普通學校로改稱하고 當地有志의育英事業을目標한 興學會에서經營하게되엿다 同學會에서는 完來의學資金은 업스나 同會幹部諸氏의 熱熱한努力으로 同校의將來는만흔希望이잇다하며 客主組合으로도 數百圓式年年寄附한다

◇私立永明學院 은五年前에當地有力者 構仁講氏外여러분의發起로 同院을設立하고 向學熱이甚하야 就學키不能한兒童으로하야곰 入學케하엿다



學興會長金佐俊氏

經營困難이 一二次가아니엿스나 諸氏의勞力과 先生諸氏의犧牲的努力으로 逐次發展의域에達하엿다한다

◇私立水晶普校 開國四百十五年四十二年前에 當地有志諸氏가 四數校舍를設立하야 伊來繼續하야오다가 一九二〇年에時代의進運에 따라水晶普通學校로名實共히곳치엇다 現在問題中에잇는 契約이 擴하야온바 所謂分食派로因하야 四十餘年이나 長久한歷史를가진同校는運命이 不遠하다한다

界產水

◇水產 朝鮮近海는漁場區域이廣汎하며 따라寒暖의兩潮流가서로交叉함으로 水產動植物의分布가豐富하다 本港은江原道沿岸으로부터全羅南道의沿岸及附近諸島의中央에位하엿슴으로 貨物集散과物貨의需給이며 交通運輸의便宜가完備하며 漁獲物의集散에極히便利하며 漁業에從事하는者가大概釜山에 根據를두고 各地에出漁하는狀態이다 大正十年五月에 牧島에總督府水產試驗場을開設하고 또는水產에關한試驗調査分析等을實施하게되엿다 이리하야朝鮮人漁業者狀況을보면 漁業其他附屬業에 從事하는者들을合하면 二千九百九十餘名이라한다 그中女子가 一千二百餘名이오 男子의大多數는漁業者이며 女子大多數는 漁物販賣業이라 朝鮮人이多數로漁獲하는 漁類는 靑魚鰯魚等이다 去年度當地客主가取扱한靑魚價額이 百萬餘圓이라한다 그러나 去年은靑魚鰯魚漁業者打擊이不振하엿슴으로 漁業者들의 悲運에 陷하엿다한다

◇農業 氣候가溫暖하야 農地로는 最適한곳이나 그러나 地勢關係로 農業은 微微不振하다 府內의 平野로는 凡一町方面이다 田畓耕地面積은七·五六六反이오 朝鮮人農業者가四千二百五十餘人이다 그러나所有地는 皆無라하야도過言이아닌 慘狀이다

◇商工業 釜山地勢關係로農業이微微不振하는 反面에漁業과 陸交通의便利로商業이殷盛함은必然의趨勢이다 그러나全部의商權은外人이 掌握한바되며 全部의商品이 外國品의散賣에不過하다 大正七八年度好景氣로因하야 或은 百萬圓幾十萬圓의資本으로 貿易에從事하엿스나 在來經驗의不足인지 不景氣의關係인지 破產에破產을거듭하야 目不忍見의 慘狀을呈하엿다 그러나 아즉도 若干의 商銀行이 잇슬뿐이다 朝鮮人의 釜山으로는寒心을 不禁한다 商業으로는 外米貿易商을 經營하게되엿다 外米貿易商으로는 金山商會主金璋泰氏의 活躍이 有望하며 또는織物商 布木商으로는 金雄鎭 權成寬 金東湊 諸氏의 活動에 만흔 囑望을 하고잇다 小資本이나마 釜山唯一한工業으로 고무製造工場이 잇다 이는 一九二三年에 資本金 二萬圓으로써 山鎭日榮고무工場이다 그러나 目下經營이 危殆하다 同時에 朝鮮人 釜山商人 諸氏는 堅忍不拔의 精神으로 斯界振興을 策하는同時에 朝鮮人釜山이되도록 努力하야 주기를바란다

納凉音樂舞蹈

同情金遝至

지난一日午後九時부터永同青年會館內에서忠北永同稽川學院主催와 永同留學生親友會永同少年會朝鮮東亞兩支局四個團體後援으로 納凉音樂舞蹈歌劇大會를開催하야 數十種의音樂舞蹈歌劇을하엿는데 場內에는拍手喝采로大盛況裡에 同日午後十二時에無事히散會하엿다는데 左記諸氏의同情金이잇섯더라(永同)

◇同情金
鄭溶駿 韓英淑 永同留學生聯合會 永同勞働青年會各二圓、金容煥 無名氏 陽江青年會 永同少年會 無名氏 孫利郁 京城永同留學生親友會 李相夏 朝鮮日報永同支局各二圓、梅川少年會 無名氏 林正景各一圓

巡講日割變更

去七月二十七日本紙에發表한바東京湖南學生巡迴講演隊講演日割은여러가지事情으로因하야左와如히變更되엿스며 今後로도또 交通과天氣의關係로豫定日割에多少間變更이잇슬지도모른다더라

第一隊巡迴日割
七月二十九日全州、卅日群山、卅一日裡里、八月一日萬頃、三日金堤、五日禾湖、六日扶安、八日井邑、九日高敞、十一日靈光、十三日咸平、十四日木浦、十六日海南

第一隊演士
金虎運、崔陽淳、柳永弼、金想華

第二隊巡迴日割
七月二十九日茂朱、三十日錦山、八月一日鎭安、二日長水、四日任實、五日南原、六日求禮、七日谷城、九日淳昌、十日潭陽、十二日長城

第二隊演士
林信圭、高光萬、鄭燦洪

第三隊巡迴日割
三十日和順、三十一日綾州、八月一日寶城、二日筏橋、四日順天、六日光陽、七日麗水、九日高興、十一日長興、十二日康津、十三日靈岩、十四日羅州、十五日南平、十六日光州

第三隊演士
鄭東文、金顯、朴亮根(和順)

注意中止連呼裏에 研究巡講隊講演

頭道溝에서大盛況裡에終幕

旣報=間島龍井市에本部를둔修養團體인研究會에서는 夏期를利用하야全間島各地를巡迴講演한다함은 이미報道한바이어니와 豫定日字와갓치지난二十五日龍井市를떠나 지난二十七日正午頭道溝에來着하야 各團體를歷訪한後當地文友會의後援下에 午後八時三十分부터青年會館에서講演會를開催하게되엿다 當日은雨天임도不拘하고 定刻前부터附近地方一帶에서蝟集하는男女聽衆은 無慮六百名에達하야 場內場外에는立錐의餘地가업게되엿는中 隊員羅培建氏가場內가떠나갈듯한歡呼拍手裡에登壇하야 意味깁흔開會辭가잇슨後 順序에따라『國際資本戰』이라는演題下에孟性在氏의熱辯이잇섯스며 『階級鬪爭은歷史的必然』이라는演題下에 金弘濟氏『農村에集中』하자는演題下에 羅培建氏가熱辯中에 當地日本領事館警察官으로부터注意中止가連發하엿스나 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

留學生의活動

◇講習、講演、演劇

◇金堤 在東京金堤學友會에서는今般夏期休暇를利用하야 地方發展에 萬一이라도裨補코저 當地朝鮮東亞兩支局後援下에 夏期巡迴講演團을 組織하고 來七日부터十日間 左記場所를巡迴한다는바 그日程은追後發表한다하며 今般當會의此擧를贊成하고 金品을 捐出하는有志도만타는데 그芳名은如左하다더라(金堤)

◇巡迴場所 白山 萬頃 靑蝦 芙蓉 院坪 金溝 竹山 月村 加佐 金堤

◇義捐諸氏芳名과그金額 郭夏鎭五十圓▲金錫均二十五圓▲趙漢國二十圓▲金璨基 金成基 金錫庠 金鎬坤 張準錫各十圓▲張鉉參 文孟鍊各五圓▲以下略

◇利川 利川에잇는在京城留學生親睦會에서는 今番夏期放學을利用하야 利川少年會와本報利川支局後援으로 지난七月卅一日午後八時半부터 當地公會堂에서音樂舞蹈大會를開催한바 當日은雨天임도不拘하고 滿員을일우은大盛況裡에 會長俞瑛植氏의開會辭가잇슨後 李錦華氏의獨唱을비롯하야 會員들의獨唱合奏와 俞炳鍍金德成兩氏의바이오링과만도링의合奏가 無限히趣味잇게되고 다시自然的歡迎으로家庭劇을잇고 新派劇을興行하엿는데 一般에게 만흔快感을與하야 拍手喝采의 소리가振動하는中에 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利川)

湖南學生巡講

二日萬頃서

在日本東京 湖南學生親睦會에서 夏期學術講演隊를組織하야 各地에巡迴한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지난二日午後八時부터 萬頃公普校講堂에 講演會를開하고 郭鍾澈君司會下에 順次熱辯을吐하엿다는데 聽衆은二百餘名에達하야 자못盛況을일우엇섯다하며 우리의것을잇지말고 一時에일으키자 無事히閉會하엿다더라(金堤)

◇演題와演士
在外同胞의生活狀態 崔陽淳君
天下의一品 金虎運君

農校生巡講

井邑公

立農業學校에서는 昨年부터夏期休暇를利用하야 當校生徒들의巡迴農事講話會를열어왓다는데 去月三十一日에는 金堤에來着하야 金堤公普校講堂에서 午後九時半부터 當校第二回生徒農事講話會를열고 金致斗君의 朝鮮農業의 由來와現狀에對한熱論이잇슨다음 當校學生들의講話가잇섯는데 그演題와演士는如左하며 金郡守의感想談이잇슨後 그翌日午前零時十五分에閉會하엿다더라(金堤)

◇演題와演士
蠶坂改良에對하야 杜洪顯
棉花栽培에對하야 申金印
鷄兒飼育에對하야 全龍煥

活動寫眞盛況

獎學會의 義捐金도遝至

旣報한바와가치廢島苦學生獎學會에서 本報釜山支局後援으로 去八月二日午後八時에國際館에서 活動寫眞을映寫한바 觀覽者가千餘名에達한 大盛況裡에서 地方有志의同情이잇슨後 同十一時半에無事히閉幕하엿다는데 同情者의氏名은左와如하다더라(釜山)

蓬萊券番九圓▲本報支局、林月仙各五圓▲成鏡月、金小香、趙金講、東萊券番各三圓▲李英俊、張長沃、鐵工組合、金雄鎭、新聞配達組合、金貞道、洪彩塢、辛翠蘭各二圓▲文尙宇、金彩蓮、鄭錦花、崔錦海、朴致五、金貞慶、釜山苦學生相助會一封▲朴允松、無名氏、李煥奎、無名氏、徐寢澤、趙鳳姬、無名氏各一圓

水害와救濟

公州敎會

忠南公州美國人敎會에서는當地內五個面의大洪水에慘狀을當한罹災同胞를爲하야 지난二日午前十時에當地大和町禮拜堂에서 方[illegible]氏의慘狀을說明한바 一般信徒는當場에서로다투어義捐金을내인것이 二十五圓에達한바 方[illegible]氏外諸氏가水害地에出發하야分配한다더라

公州青年

忠南公州靑年會에서는지난洪水로因하야當地寺谷面을비롯하야 新上、新下、正安、儀堂面各個面에對하야 罹災同胞가死境에在함을救助하기爲하야 本社公州支局後援으로 去月三十一日午後八時부터當地錦江館에서素人劇을開演하엿는바 雨中도不拘하고入場한觀客은盛況을呈하엿는바 金洪喆氏가開會辭를하고趣旨를說明한後 여러가지悲喜劇을演出하야一般의興味를끌고 同十二時에無事히閉會하엿는데 入場料收入과同情金이三十餘圓이라는바 劇場料를除하고二十圓은救濟會에寄附하엿다더라(公州)

妓生出演

罹災同胞救助

忠南公州料理屋組合에잇는妓生一同은 去番洪水의慘禍를當한本郡內罹災同胞를救助하기爲하야 지난一日午後八時頃부터當地錦江館에서 歌舞曲演奏會를開催하엿다는데 定刻前부터모혀든觀客은一場의盛況을呈한中에 妓生一同은罹災同胞에게同情하야 聲曲과歌舞로舞臺에登場하야 觀衆에게만흔感興을주고 이어一般觀衆의同情金募集에入하야 同情金募集의結果 十餘圓에達한바 其中實費를除하고殘額全部를救濟費에充用하엿다더라(公州)

平壤染工發會

平壤染

織工組合發會式은去二日午後三時부터同府內薛岩里天道敎堂內에서開催하엿는바 百五十餘名의參會者가有하야 李國氏의司會下에 市內各勞働團體와其他의祝電祝文朗讀이잇슨後 紀念撮影이잇고 茶菓會에移하야 同七時에大盛況裡에閉會하엿다더라(平壤)

金陵學院爲하야 活動寫眞上映

大邱萬鏡館에서

大邱萬鏡館에서는金泉金陵學院의經營의困難으로悲運에잇다함을듯고 이를多少間補助키爲하야 지난八月二日부터三日間金泉座에서活動寫眞會를開催하고 此의收入金中에서實費를除한利益은金陵學院에補助한다더라(金泉)

金泉서兩氏講演

柳東

時報社巡迴講演團鄭世鍾崔謹兩氏는去二日에金泉에到着하야 當日午後五時半부터本報金泉支局後援으로金陵青年會館에서講演會를開催하고 鄭世鍾氏의『우리의活路』란演題와 崔謹氏의『世界大勢와青年의使命』이란演題로各各熱辯을吐하엿는데 臨席警官으로부터數次注意를바닷스나 李容仁氏는이에慨慨하야警官에게不快한言辭로對抗하다가 金泉警察署에檢束되엿다더라(金泉)

南原庭球大會

南原郡

鳳棲花園主催로來七八兩日間第一回南鮮庭球大會를同園에서開催한다는데 各團은多數히參加하기를希望한다더라(南原)

平電問題解決 促進期成運動

遲延된면府民은再次蹶起

平壤電氣問題는平電側의第二回延期請願으로因하야 遲延되리라는것은旣報와如하거니와 此에對하야前期成會實行委員四五人은 再昨三日午前에松井府尹을訪問하고 平電側의不誠意한態度에對하야는 府民의有志들은第二次로府民을糾合하야 實現促進運動을開始하겟다는意見을보인바 府尹으로부터는來八月十日부터讓渡交涉을開始할터이라고 對答하엿슴으로 同委員들은可及的迅速히締結되도록 要望하엿다더라(平壤)

安東警察의高壓

留學生歡迎會도禁止

慶北安東青年會에서는國內外留學生의歸省을機會로하야 七月三十日午後一時에同會館內에서在外留學生歡迎會를開催하려고 萬般의準備가整頓되엿는바 同日午後에安東警察署에서는突然히이것을禁止함으로 幹部들은이에憤慨하야여러가지로質問하엿스나 畢竟그대로禁止되고말앗다더라(安東)

郵便所新設

沙里院舊市街

黃海道沙里院朴文奎氏는同市街에郵便所를特設할目的으로當局에許可申請을提出하엿든바 七月九日附로許可되야 方今郵便所의諸般設備에奔忙中인데 事務取扱은八月十六日부터라고(沙里院)

第五回南朝鮮蹴球大會

◇時日 八月十四、十五兩日
◇場所 金堤公普校코-트
◇申請期日 八月十一日外지
◇申請場所 東亞日報金堤支局
◇參加金 每組二圓式
◇抽籤 八月十三日午後九時
◇參加選手 每組에十一人候補二人
◇賞品 優勝旗及其他
◇主催 金堤青年會
◇後援 朝鮮、東亞兩金堤支局

慶北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八、九兩日
◇場所 永川公普校코-트
◇申請期日 八月七日外지
◇申請場所 東亞日報永川支局
◇抽籤 八月七日下午九時(青年會館)
◇參加金 每組金一圓
◇規則 在來式에依함
◇賞品 優勝旗、其他
◇主催 東亞日報永川支局
◇後援 永川青年會、時代日報永川支局

第二回慶北庭球大會

◇時日 八月七、八、九三日
◇場所 安東公普校女子部코-트
◇申請期日 青年部八月七日外지 少年部八月六日外지
◇申請場所 安東庭球俱樂部
◇參加金 青年團參圓少年團免除
◇規則 新規則에依함
◇參加組數 一團三組(少年團은身長五尺八寸以下)
◇主催 安東庭球俱樂部
◇後援 東亞日報安東支局

第一回平安庭球大會

◇時日 八月五六兩日間(雨天順延)
◇場所 球場金剛組合코-트
◇參加金 三組一團金三圓
◇申請場所 東亞日報球場分局
◇主催 球場俱樂部
◇後援 東亞日報球場分局

第二回全朝鮮庭球大會

◇時日 八月七日、八日(雨天順延)
◇場所 通川公普校코-트
◇申請期日 八月六日外지
◇申請場所 開闢社通川分社
◇抽籤 八月六日午後三時通川公普校
◇使用球 [illegible]
◇參加金 一團二圓
◇選手 三組
◇賞品 優勝旗、現金十圓
◇主催 開闢社通川分社
◇後援 東亞日報元山支局

第三回黃州庭球大會

◇時日 八月十五、六兩日
◇場所 黃州公立普通學校코-트
◇申請場所 黃州留學生會
◇申請期日 八月十三日外지(抽籤은十五日午前八時)
◇參加金 一團(三組)金三圓
◇主催 黃州留學生會
◇後援 黃州青年會、華靑俱樂部、東亞、朝鮮兩支局

嶺美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四日(雨天順延)(抽籤은同日午前九時)
◇場所 嶺美俱樂部코-트
◇參加金 一組一圓
◇申請期日 八月十三日
◇申請場所 [illegible]醫院
◇主催 嶺美俱樂部
◇後援 朝鮮、東亞兩支局

東京橫濱大地震

地鳴震動强大=被害不少

【東京三日發午後六時三十三分發至急電報】=지금으로부터 사년전구월일일에 일본관동디방(關東地方)에 큰디진이나서참극을 연출하얏는데 삼일오후여섯시이십삼분에 또다시동경(東京)에 격렬한큰디진(地震)이일어나 방금땅이몹시울리며진동을격렬하게하야사내에는문허지는가옥이만타더라

大震災後殘存家屋 今番에太半倒壞?

【下關三日發電報】삼일오후여섯시이십삼분에 동경디방에는땅이울며 급격한디진이이러나 약삼분간은상하(上下)동으로격렬히진동되엿는데 그뎡도는 대졍십삼년일월오일에 이러낫든 디진과 거의동일하며 뎐신뎐화선이단절되고 각신문사의문선공장(文選工場)에잇는 활자(活字)가엽흘러저 혼잡과곤난을이루고 괘종(掛鐘)은전부쉬엿스며 그손해뎡도는 아즉 조사중이나 대졍십이년구월의디진때에 남은가옥이 이번에 대개문허젓는데 하여간 량사일동안오십년이래로 처음이라할만한 흉흉한디진을 마암아 이무슨큰재변의전조나 아닌가하야 관헌공중하는곳에 이러한큰디진이나려낫슴으로 안심은매우흉흉하다더라

全市에交通通信 一時는全部杜絶

【下關發至急電報】=대졍십삼년일월십오일 이래의 처음되는 큰디진으로서 동경시내뎐차(電車)는 의형할가뎡편하야 경선(京線)의 운뎐을중지하고 성선뎐차(省線電車)도 운뎐을중지하고 각뎐신뎐화(電信電話)계원(係員)도 디진이일어나자동시에 소리를질으고 국사(局舍)의 문밧그로 뛰여나갓슴으로 동경전시가의 통신교통긔관(通信交通機關)은 일시전부두절되엿고 전시가에 문허진가옥(倒壞家屋)도 상당히만흐며 전한에 연진통권들이모다흔들리며 써러지고 길거리에 매달린가로등(街路燈)이 다수히부서지고 산수(山手)방면과가튼 디반(地盤)이 더운곳에는 담벽이흘난곳도 만타는데 일반시민의공포는 디진이멈춘지 한시간동안이나 지나여 평상시와 갓게되엿는데도 오히려 집안에를 드러가기를서로주저하엿스며 틈히 잡답을일우게되는것이 여러가지 흉행되는것이잇서 디진이 이러나자 관계는 비상히 쇄도하야 대혼잡을 이루게된것이라더라

列車도一時運轉不能

【下關發至急電報】=횡수하디방(橫須賀地方)에도 동경과가튼시가에 견줄수업슬만치 큰디진이잇서 피해가상당히만코 또는렬차(列車)도그로인하야일시운뎐을못하엿다더라

市民公園에雲集

【東京發至急電報】=삼일오후여섯시이십삼분의 큰디진은 겨우 진뎡되엿스나 시민의 불안은의연히진뎡되지안코 일비곡(日比谷)상야(上野)지(芝)공원에 구름갓치모혀드는 피란민은 오래간만에또다시진재(震災)의기분을띄엿더라

宇都宮地方

(下關三日午後七時四十分發電報)우도궁(宇都宮)방면에도동일한시각에 강진이이러나량시간동안진동이되엿는데 대졍십이년도의 디진보다는 약하엿더라

橫須賀地方

(下關三日午後七時四十分發電報)삼일오후여섯시이십오분에횡수하(橫須賀)방면에도큰디진이 이러나수평동(水平動)으로부터상하동(上下動)으로변하여격동하는바 당에시민들은놀래양으로부터뛰여나와각처에 모혀피난중인데 그진동한뎡도는 시계가서고 물통에물이넘첫스며인데에갈음되가는 약삼분간이오인가도 만히파괴되엿더라

橫濱被害不少

【下關發至急電報】=동경방면당진이엄습하야 사변권의디진과동(永樂町)와 각대신관(大岡町)일하야시민들은아우성을치며문밧그로뛰여나가는등매우공포중이며 강한디진으로인하야 벽에 흠이 떠러지는중이고 여러가지 고히번에있다는데피해도상당히만타더라

震源地는東京灣

【下關發至急電報】=별항보도한동경디방(東京地方)의 디진에대하야 두가지의발표가 잇는데 중앙기상대(中央氣象臺)의 발표에의하면 디진은 팔월삼일오후여섯시이십륙분이십구초에 발진(發震)되야 초긔미동(初期微動)이 삼십사초 최대진폭(最大振幅)이 이분륙리(二分六厘) 진동시간이 삼분이십초이며 진원디는 상모탄(相模灘)근방이라하엿고 명고옥측후소(名古屋測候所)의 관측에의하면 동경으로부터 동북동(東北東)이십사리에잇는 상모탄(相模灘)이라하엿고 동경으로부터 동남으로 팔리가량되는 목경진(木更津)에서 동남으로 팔리가량되는 안정년간(安政年間)에 이러난 큰디진과 진원디가동일하며 디진대(地震帶)의 주면이라더라

强震被害詳報

경사가옥과도로파괴가만타

별항과갓흔관동(關東)디방의강진가 불동되엿스며 북쪽방면의 관파해는다음과갓다더라 ▲橫濱 일사면동이 쉬지고 면뎡(永樂町)사천이백오번디부근 해안에걸이(長)멸다섯간에달비(幅)다섯간이문허저서가옥몃호가써우러지며 부상자 한명이잇섯다더라 ▲東京 부하롱천(府下瀧川)구 백이십칠번디부근에놉히(高)사척가량되는 돌담이 열간이상이 무너지고 천긔(川崎)경빈뎐차선(京濱電車線)륙향뎔교(六鄕鐵橋)부근의선로가 구부러지고 고압선(高壓線)이 문허지여뎐소(送電所)에 고장을 이르키어 전선(全線)운뎐이 불통하게되엿다더라

硝子와鷄卵商

피해를만히입어

동경시에서는 디진이 낫슬때에 거리에들이다가 각각부인아해들이집밧그로 뛰여나가기 때문에 비상한혼잡을 이루엇는데은좌통(銀座通)과 가튼곳에는 한집밧그로내다른 군중으로말미암아 뎐차통도 가지못하고옷는못쓰게되엿며 큰소동을 이르켯다는데 디진의 범위는상당히넓은모양이나 진동(震動)이 격렬한것만큼은진동시각이 길벗섯슴으로 피해는별로 업고오즉초자뎜(硝子店)이나 계란뎜(鷄卵店)가튼곳에 상당한피해가잇슬뿐이라더라(동경뎐보)

各地地震程度

東京三日發電報=일본각디에 이러난 디진의뎡도에 대하야 중앙기상대(中央氣象臺)에도착된 보도에의하면 ▲奈良 문고리가울렷고 ▲橫須賀 성질은느지나집채가 웅지기고 그릇에담물이넘처나왓스며 ▲川崎 상하동(上下動)으로와 가옥이 모다울조젓스며 ▲岳尾 약진(弱震)이나성질이 강하야그릇의 물이넘처나왓스며 ▲熊谷▲水戶▲宇都宮 동은시계가멈출만흔엿는데 사람들은 모다문밧그로피란하엿다더라

【以上號外再錄】

昨午後滿潮로 漢江二十尺

작오후한시후부터점감상태

沿江避難民八百餘名 浸水二百餘戶

룡산관내피해

재작삼일부터 비는근치어한강상류(漢江上流)디방에는차츰감수상태에잇스나 룡산 원뎡(元町)방면에는오히려 려증수가되여 작사일오전 아홉시에이십구척오촌삼분에달하야 동일 오후한시는 특히만조(滿潮)써 임으로적어도삼십척은넘으리라하야 현장일대의 주민들은 물론경찰당국에서도 상당히 경계를하는중이엇스나 다행히 동일오후두시까지도 수위(水位)는 더놉하지지도안코 나리지도 안코의연히 삼십척삼촌삼분 이엇는데 상류디방에다시 폭우가업스면감수될듯하다는데 그가튼 증수로말미아마 여러번 침수되엿든동막(東幕)마포(麻浦)방면에는더욱 침수가 심하야피란민팔백칠십여명은 마포 공립보통학교와 긔타 방면으로피란하야각각자취들을하고 감수되기를 기대리고잇는중이라더라

한강의증수는삼십척에나갓가와 피해는 다시심하다할은 별항과갓거니와 작사일오전 여덟시반까지룡산서에피해는다음과갓다더라

▲麻浦方面浸水家屋一四一戶道路浸水三〇〇間▲東幕方面浸水家屋七二戶道路浸水四〇〇間

平北降雨繼續

피해가막대

평안북도 지사로부터 도착된보고에의하면 국경디방은 지난 이십칠일부터오는비가 쉿지아니하야 일이등도로와 교량의 피해가 막심하며 각처의교통도 두절한곳이 만흔모양이나 아직자세한 바를 알수업스며 판명된곳만의복구공사비는 사십칠만원이드러야되겟다더라

平南地方水害

京義線列車一時不通

그외다른교통도두절되야

지난이일밤 여덟시반경 부터평양덕을위시하야 양덕(陽德)맹산(孟山)성천(成川)강동(江東)디방에폭우가 나리기시작하야 삼일오전세시경까지폭주 하얏는바양덕이최고로칠십미리가왓다하며 대동강상류로부터 하류에일으기까지 증수되어 삼일오후한시까지 평남도청에 도착한 증수보고를보건대청천강(淸川江)에는오전아홉시경에 이십오척이나증수되어개천(价川)과희천(熙川)방면의자동차는교통이 두절되고군우리(軍隅里)로부터 신안주(新安州)에일으는경편렬차도중안주역(安州驛)부근일대는 선로가 무자나되는 물에잠기어 삼일오전일곱시 사십분 군우리발신안주행 렬차가북송리역(北松里驛)뎡거댱에 일으러서압허 무쥐되엿스며 청천강연안에잇는 면앙은보다 침수되엿섯는데손해는 아직알수 업스며 자세한것은 방금조사중이라 하며평양 대동강은 삼일오후아홉시까지 십사척의증수가되엿섯는데 여덟시까지는 한시간에 칠촌가량식 증수되는 모양이엿섯스나 아홉시부터는 떠느는형세가뵈이지 안이하고차차 감수될모양이엿섯다더라(평양)

价川輕鐵도不通

청천강증수로

평남안주(安州)디방에도지난이일밤부터 물이붓기 시작하야 청천강(淸川江)상류녕변군(寧邊郡)에는이십오척까지증수되야전시가가 침수되엿스며 안주(安州)에 이르는강안평야가 넓은관계로 십팔척에까지달하엿든바 삼일오전 여덟시부터 조곰식 감수됨으로 대개안심하엿스나 오후네시에 만조(滿潮)가무섭다하야 신안주(新安州)방면에는 미리피란을 하엿든바 물이부를때에는 한시간에 한자이상식이부럿섯스며 증수로개천경편차(价川輕便車)는지난삼일아츰부터 통처못한다는바 룡흥(龍興)은전부침수가되야 청천강 연안가옥뎐답에손해가만타더라(안주)

平澤地方被害

뎐답침수륙백뎡보

경긔도평택군(京畿道平澤郡)에는 재작삼일오후세시부터안성천(安城川)이증수하야 작사일오전다섯시반에 이르러는 최고수위아홉자다섯치에 달하야 뎐답(田畓)에 침수는륙백여뎡보에 달하고 도로와 교량과데방도문허질위험상태에잇서서 그부근주민들은 권천공회당중에 피란한다는데 평택으로부터 충남방포(忠南反浦)에이르는도로 [illegible] 넉자가량이나 물이잠기어 일시교통도두절되엿섯다더라

大同郡道路破損

대동군부산면(大同郡斧山面)과림원면(林原面)사이에잇는평양녕원(寧遠)간의이등도로는지난달이십팔일 폭우로 말미암어일백팔십간이나 파괴되어 교통이 두절되엿슴으로 부득이구도를 사용하기로되엿스며 방금 수선중이라는데손해는약천원가량이엇섯다더라(평양)

昌原地方虫災

경남창원

창원군대산면(昌原郡大山面)일대와 동군동면산남리(東面山南里)앞들에는요사이지리한 장마끝에벼에도열병(稻熱病)이라는 충재가발생하야 벼논마다구멍이뚤피고 잇는데 동시에명충(螟虫)과부진자(浮塵子)까지도발생하야 큰소동이 일어난다하며 이에 각방면으로 구제(驅除)에 진력하나 하등신긔한효과가 업슴으로 일반농가에서는우려하는중이라고(진영)

京城電料減下率

一割一厘決定

문데되던경성뎐긔료금은 일할일리로감하하게결뎡

昨四日遞信局發表

경성시내(京城市內)뎐긔료금감하문데는 그동안차일피일하여오다가 작사일오후한시에 톄신국(遞信局)자단에게시(揭示)한바이엿는데뎐긔료금의 각종류의 감하액은평균 일할일리에 달하는바 로인뎡하고 다시십년도의 리익과배당 각종적립금 중역상여금과다를합하야 감액할수 잇는것이삼십삼만 일천구백 륙십일원의반과액(半期額)십칠만오천구백팔십원 오십전을 충당하기로되여 경성뎐긔회사(京電)에서도이액수를 승락하엿다 하며료금감하는 팔월일일 부터실행하리라는바 상세한 감하률은발표할터이라더라

朝鮮語講習

울산해영회주최로 오난칠일부터

경남울산군(慶南蔚山郡)해영학원(海泳學院)주최로된오난칠일부터 십륙일까지 열흘동안의조선어강습회의 강사는 최현배(崔鉉培)신명균(申明均)정렬모(鄭烈模)세씨라하며지원자는 칠일까지 입학하기 조켓다더라(울산뎐보)

서울俱樂部總會

서울야구단에서는금오일오후여섯시에시내종로(鍾路)중앙긔독교청년회관안에서 동단선수총회를열터이라는데 다음의선수들은 모다출석하여주기를바란다더라

▲李榮敏▲白拮珠▲金洛現▲柳正奎▲朴正根▲朴潛樂▲金龍吉▲徐炳仁▲安正柱氏等外昨年大會參加選手諸氏

太乙敎聲討

강증산제사로 공덕청년회서성토

김뎨군백산면조종굴(金提郡白山面新宗里) 태을교조(太乙敎祖)고강증산(故姜甑山)의 집에서는그교도들이 소와 도야지를 잡어노코 그교조의 제사를정며 흥청하게지내엿다는데 이말을들은 김뎨군공덕청년회(孔德靑年會)에서는 분히분개하야 당일밤에 제사장에 급히가서 태을교의처사를공박하엿다더라(김뎨)

朝鮮教員憤慨

旅費差別問題로

高敞公普教員講習會醜態

一청구서엔일인려비와가치쓰고 실디는일본인보다반액을주어一

고창교육회(高敞敎育會)에서는 일본인으로던헤지조(蔵田惠之助)를 강사로 초빙하야 지난이십일일부터십일간 고창읍에 보통학교교원강습회를열어삼십일에맛첫섯던바 돌연히괴상한 문데가일어나조선인 교원들이 야단을첫다는데 그자세한내용은 지난이십구일에 동군뎡 학무계(學務係)에서고창군교원들에게는 려비를주겟다고 려비청구서에 도장을바더갓던바 삼십일에 려비를지출할때에 일본교원 에게는 이십오원이고 조선인 교원은청구서에는 일인교원과가치 이십오원이라쓰고 현금지출은십이원밧게아니줌으로조선인교원들은분개히녁여 동군평안 서무주임(平安庶務主任)을방문하고금번강습회 려비에 대하야 조선인교사와 일본인교사의 차별을물엇섯던바 일본인려관에서는 매일이원오십전식이라도오히려부족하고 조선인려관은 일원이십전식이면 넉넉하기때문에 실비를주라고 그러케된것이고 그중에십삼원은 강습회비로 쓴것이라고 모호한답변을하고 동군수도처음에는 이리저리 말을피하다가내종에는 책임을 서무주임에게밀우고 결국돈을 주지아니한외에 여러가지로 차별을함으로그가치 조선인교원 십륙명은 분함을 참지못하야 청구서를차저가지고각그돌아갓다더라(고창)

勞働夜學解散

법규의위반된일이잇다고

仁川署高等係의苛酷한處置

인천경찰서고등계(仁川高等係)에서는 재작삼일 오전열한시에 당디로동소년소녀회(勞働少年少女會)지도자고삼봉(高三奉)을 소환하야 그회에서 경영하여 오는야학부(夜學部)의폐교명령을 하엿슴으로 그는당디 로동련맹과협력하야 선후책을 강구중이라더라

警察의主張

이에대하야 인천경찰서고등계원은 말하기를 배호며 가라치는 것을못하게 한다함은심히 미안한바이나 법규에위엄이 되는것은 엇지할수업서 유감이나금지 한것이오그러나모든것을 법규에 따라수속을하야 인가를엇은후에 하는것이올흔일이 겟지오말하더라

繼續하기를盡力

로동련맹과협력하야

이번일에 대하야로동련맹(勞働聯盟)간부모씨를 차진즉한신한 괴색으로말을시작하야사실그야학부는 얼마전에로동학원(勞働學院)과한만요라는 조건으로해산을당한후 가련한 각공장에품파는소년 직공들의배호고자 하는뜻을위하야 로동소년 소녀회를조직하여 가지고지난 륙월초부터 야학부를 시작하야 칠십여명의소년소녀 직공의 초등교육을하여오든 것이돌연히 이번에 해산을 당케된것으로 법규의수속을하자면 여간일이 아님으로 계속할일이 막연하나 본로총과 협력하야 긔어히계속하기를 힘쓰려하는데 인천유지의 만흔동정을바라는터이라말하더라(인천)

失踪負傷十五名 死亡判明十五名

두번재생긴강원도녕월군의큰수재로 판명된것이사망자십칠실종은십삼명

第二次江原道水害

강원도 경찰부당으로부터 이일오후다섯시에 총독부 경무국당에대한뎐보에 의지하면 일일녕월군수주면에 모래가 흘려나려 류실가옥이 륙십호에달하고 사망자가 사십명에이르렷다는 소문이잇스나 교통두절로 자세한바를 알수업슴으로 조사한후에 속보한다고하엿든바 삼일오후 세시십분에 겨우뎐화가 계통되여 자세한진상의뎐보가 왓섯는데 그에의지하면 수주면의재해상황은 아즉 계속조사중임으로 확실한바를 알수업스나 지금까지판명된것은 사자십일명 거처불명십삼명 류실가옥 이십삼호 도괴가옥팔호라고하엿든바 동세시사십분 착뎐에의지하면 전번뎐보외에 판명된것이 사자륙명부상자이명 가옥류실구호 도괴가옥이십사호 침수가옥 십일호라고하엿슴으로피해를총합하여보면 사망자십칠명 거처불명십삼명 부상자이명 류실가옥삼십이호 도괴가옥삼십이호 침수가옥이십일호이라더라

港灣一瞥

東海岸海洋生活 (九)

「風浪은四時張大樂 泡花는萬里貢明珠」

一동해바다룡의구항들바다의상법사환생하고 방동의고섬삼일포는책가운데차질밧게업서一

水陸巡訪第二隊一班 長箭에서白頭山人

◇第九信 長箭에서

의상법사(義湘法師)에 대한전설을미든수잇고업고는 별문데로하고이약이가하도신긔하니 이에적어볼가합니다 요견편지에말슴한이곳관음굴(觀音窟)은그곳사람들이 말하기를관음대사(觀音大師)가 사는곳이라하엿다는데 그굴에서 오십보(步)가량떠러저서 바다가운데 외로히잇는바위에안저 정성을드리면 능히관음대사의얼굴을볼수잇다는 전설이잇섯다합니다 이말을미든신라승(新羅僧)의상법사가 그바위에자리를펴고 이십칠일동안 정성을드리엿스나 관음대사의얼굴을보지못하고 그것을비관하야바다가운데에 뛰여드러니 동해바다룡에게 구함을밧고그룡에게서여의주(如意珠)를엇어가지고그구슬로불상을장식하야 락산사에봉안하엿답니다

◇

이구슬만가지면이세상일이모다마음대로된다하나 엇을수만잇다하면 모든일들다 거더치우고여의주를 차자나설일엄니다마는 지금세상에는이러케어리석은일을할사람이업슴닛가 갓슴니다 락산사 여의주 관음굴에 대한전설은 한두가지가 안님니다마는 일이밧부니 뒤ㅅ과하로 미를가합니다 락산사정취에 대하야 말한바이업소니고인의 시(詩)한절을 부쳐둡니다

風浪四時張大樂、泡花萬里貢明珠、白雲深處山中寺、明月來時海十樓、

八字가崎嶇하고 習慣도怪惡지요

―어느날죽을는지목숨도모르오그러위지고 바다에가면바다가그리워―

海洋에生活하는船室짓이의말

일본부터우리배는 원하의명승디라는 해금강(海金剛)불서편으로서고북으로 다라납니다 신라써신선네사람이 사흘동안을놀다갓『永郎徒南石行』이란 붉은글자를 바위에새여노코갓다는고성삼일포(高城三日浦)가하고가젓든여디승람(輿地勝覽)을뒤지내면서엇더한 곳인 시가한구절이눈에띄엽니다 『三十六峯秋雨晴、一兩仙蹤十分滿、日斜未用輕回棹、楓岸松汀待月明』 구경복업는나는 이러한맛을볼날이잇스리라는 생각으로 울분한계마음을 스스로 위로하고잇노란즉 『보ー이』가 오더니해양생활(海洋生活)에 대한 자기의 경험들이야기하기시작합니다 밤중이되여서 밧갓을 내다볼수업슴을바에는 차라리 류보자고본책을 거더치우고이야기에 귀를기우렷나이다 삼십이넘어보이는 『보ー이』는 내가 함애떠욱 쇠를어든 모양으로 그류창한일본말로 이야기를계속합니다

그들은 원래일두달동안순전히 바다에서 살아난다합니다 그러고발서 그에습관이되여서 육디에나오면 보통사람이바다에가는모양으로 잠간동안은매우상쾌하고좃타가도 얼마가되지못하야 곳바다가그리워진다합니다 『팔자도괴구하거니와습관도 괴악하지요 실상이배가이려케 떠도라다니다가 어느써엇더케 될는지알수업지요 래일죽을는지 모레죽을는지 목숨을 알수업지 안습니가』 이말을들은듯고 석양에먼바다에서 돗대를달고돗단부근으로 도라들든어선(漁船)생각이납니다 아츰에나가서저녁에도라오기는 똑갓지마는바다에나갓다가 자긔집으로무사히도라가는어부(漁夫)의마음은특별히 더질거울것가 나다원포귀범(遠浦歸帆)이란 경치로만볼것이아니라 그배속에안즌어부의마음과 그배를바다보고잇는어부의가족들마음만보고깃는대서 먼바다를바라을살핀다하면 실로처량한인정미를늑길수잇슴즉압니다

◈天氣豫報◈ 曇

昨日正午 [illegible]
昨日最高 [illegible]
昨年昨日正午 [illegible]

第四回決算公告

大正十五年六月卅日假借對照表

資産之部	
未拂込株金	三,七五〇,〇〇〇.〇〇
現金	[illegible]
郵便振替貯金	[illegible]
銀行其他預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動産	[illegible]
什器	[illegible]
未收利息	[illegible]
未收保險料	[illegible]
代理店貸	[illegible]
他保險會社貸	[illegible]
未收再保險金	[illegible]
供託金	[illegible]
假拂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負債之部	
株金	五,〇〇〇,〇〇〇.〇〇
法定積立金	[illegible]
責任準備金	[illegible]
支拂備金	[illegible]
代理店借	[illegible]
他保險會社借	[illegible]
未拂保險金	[illegible]
社員身元保證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利益金	[illegible]
合計	[illegible]

利益金處分	
法定積立金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株主配當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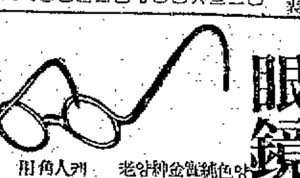
右와如함

大正十五年八月三日

京城府明治町一丁目五十九番地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眼鏡의特價提供



防塵眼鏡用 대모테	金五拾五錢
玉入	
學生用 셀테 玉入	金貳圓
大人用 張眼鏡	金三圓五十錢
水晶玉入	
大人用 대모테	金一圓二十錢
大人形 玉入	
老眼鏡은年齡을通知하시면그에相當한老人眼鏡을보냄니다	
上等金色鍍金 紳士 양色鏡	
水晶玉入	金五圓三十錢
海水浴眼鏡	甲五十錢 乙四十錢
望遠鏡	甲六圓 乙三圓

(但 送金에限하야 送料不要)

其他金枠銀枠렌쓰는最新優秀한物品이供備되엿슴니다

各眼科醫院指定調製所

京城本町二丁目

大學堂眼鏡店

電話(本)二三七五番 振替京城一二二九番

資本金六百萬圓

(明治三十八年設立)

當銀行은預金、貸金、爲替等一般銀行業務를確實親切히取扱함

京城府南大門通一丁目十四番地

株式會社 漢城銀行

電話光化門長七六〇番 振替口座京城二二〇五番

第三學年若干人 五山高等普通學校補缺生募集

願書提出期日 八月末日까지
試驗期日 九月三四日

クラブ洗粉改訂値段表

品名	種別	個數	公正小賣價格
クラブ洗粉	大罐	一個	一圓二十錢
クラブ洗粉	專賣特許罐	一個	九十錢
クラブ洗粉	小判大瓶入	一個	四十錢
クラブ洗粉	特許瓶入	一個	四十錢
クラブ洗粉	別大袋	一個	四十五錢
クラブ洗粉	德用袋	一個	四十五錢
クラブ洗粉	家庭袋	一個	三十九錢
クラブ洗粉	特大袋	一個	三十三錢
クラブ洗粉	大袋	一個	十六錢
クラブ洗粉	記念袋	一個	二十九錢
クラブ洗粉	小判罐	一個	四十二錢
クラブ洗粉	丸筒	一個	七十錢

八月一日부터全國一齊히右와如히輕微한價格을改正하엿사오니賛成하신後實行하시기를바라나이다 敬具

大正十五年七月

クラブ化粧品 カテイ石鹼 クラブ石鹼 總本店 中山太陽堂

全國卸小賣店各位

鮮銀券大縮少

大正七年當時接近 五百萬圓臺割은至難

盛夏期에入하야 需要資金이 閑散함으로 今年 市場의 需要는 二千三百萬圓程度인바 最近朝鮮銀行에서 調査한바에 依하면 鮮銀券은 三日發行高 六千六百九十六萬餘圓, 正貨二千三百萬餘圓으로 發行高는 前月보다 一億二千五百萬圓 以上이 縮少하고 大正十二年以後 最低記錄 百萬圓以上 縮少하야 大正七年 最低記錄 六千四五百萬圓에 接近한다 그러나 六千五百萬圓臺가 外에 더 지면 限外發行의 必要가 업고 正貨의 關係上 五百萬圓臺 割은 絶對로 업고 鮮銀當局은 말하는바이와 가치 大縮少한 原因은 아래와 갓더라

(一) 一般財界의 不振深刻

(二) 各支店의 受渡가 極少하고 回收가 漸次되는바 此는 一般節約氣分을 示한 證據이다

(三) 韓資金의 減少時히 南鮮地方

(四) 晋州, 湖南, 天津의 小額金取引은 昨年에 中止하고 漸次 撤廢하는 때 目下 銀行으로 變更된 關係上 百萬圓의 相違가 잇게 되엿다

全鮮金組

運轉資金과貸出 遊金一千餘萬圓

金融組合의 金利高는 營業費가 細 運轉資金에 對하야 五分六毛以上으로 銀行에 五倍以上인 것과 高利로 零細한 資金을 蒐集하야 도리혀 遊金融을 맛고 低利로 預銀에 預金하는 等 無謀한 營業方針에 起因한 것은 旣報한바이나 最近 總督府理財課에서 調査한 都市村落組合으로 五百九의 組合運轉資金에 對한 貸出의 現狀을 보면 運轉資金은 七千百七十五萬一千四百三十八圓으로 貸出金 五千八百二十二萬三百二十五圓으로 差引 一千三百五十三萬一千百十三圓은 依然遊金이 되는바 目下 各道別로 都市村落을 區別하야 運轉資金과 貸出金의 比較는 아래와 갓더라 (單位千圓)

	村落 資金	村落 貸金	都市 資金	都市 貸金
京畿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忠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全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慶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黃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平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咸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江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取重役과 委員聯合會

九日에再開

◇旣報=京取重役과大株主會議員의聯合會는午後三時會議를終하엿는데그內容은天日社長이먼저合倂問題其後의經過를報告하고荒井氏로부터大阪에서勸信에肩代의對한詳細說明이잇섯고合倂問題의中止又는延期는五名委員中二名이出席치아니함으로重大問題인關係上來九日에다시聯合會를開한다고散解한것이라더라

朝鮮內在庫鹽

一億二千萬斤

七月末現在官鹽收納高는一億四千八百萬斤이나一方民間의消費는不需要期에入하야不振하고거

朝鮮柏子

十倍가暴騰 牧山殖産局技師談

朝鮮의 一特産物이라 할 柏子가 昨年以來 東京大阪을 비롯하야 日本主要都市 需要가 喚起하엿슴으로 昨年價格은 一石五十圓內外지는 一石五百圓乃至八十圓程度로 去來되엿든 것이 急速히 騰貴하야 近者에는 一石五百圓乃至八百圓의 高價로 昨年十倍價가 되엿스나 日本의 注文은 繼續殺到하는 狀況인바 此柏子는 五葉松의 結實한 것으로 朝鮮內의 主要產地는 (江原道金剛山附近을 中心으로 하고) 黃海道 咸鏡南北道 等으로 一箇年의 產額 約二千石程度인데 昨年以來 日本의 注文은 二千石以上에 達하엿스며 朝鮮內產品이 不足하야 西伯利亞地方에 搬出하는 狀態이며 此亦 日本에 需要方面와 가치 日本에 歡迎된 것은 朝鮮人蔘과 가치 强壯劑로 從來 鮮人間에 愛用하는 外에 近代醫學上 實驗에 依하야 『뷔다민』 含有量이 豐富한 勢가 잇다고 傳하며 一般人의 食用으로도 需要되야 西洋料理의 宴會에는 藥花朱의 代用으로 歡迎되는 터이라더라

糖價强弱兩觀

阪地砂糖市勢는六月中操短을實施하야揚勝步調로變한以來二十四圓三十錢假量까지騰貴하엿스나供給過多와限臨反動으로漸落步調가되야去月下旬에二十一圓臺의大暴落을보하고以來漸次市價維持策으로今回二十三圓五十錢以下反賣를行하고二十四圓賣止를發表한바그結果阪地市勢二日一躍四十錢이反騰하야二十三圓七十錢이되고朝鮮도日本의追隨로六十錢假量은昂騰하엿스며目前觀으로는根據가업는人爲策動인만큼供給過剩의大勢上보다弱氣說이有力하나一面明年溯新減收說도잇서今後需要旺盛을豫想하고低價는買方針이有力하다더라

府債券認可는

朝鮮財界에一劃期

朝鮮總督府는 最近外지 公共團體의 債券發行은 絶對로 不可하다는 方針이엿스나 草間財務局長이 過日歸鮮하는 同時에 債券發行도 絶對終止치 아니함에 抑制한 方針인바 아마 不遠間 京城府의 債券發行을 許可할것이며 債券發行은 同時 京城 釜山 大邱 平壤에도 總督府가 方針으로 認可치 아니한만큼 正文으로 分束縛치 아니할터인것으로 不緩하고 府가 條令을 幾布하며 足하나 總督府의 此新方針은 朝鮮의 金融界가 一期를 劃하리라더라

七分六七厘로

成立될듯 某銀行家談

東京市債가七分一厘乃至七分五六厘, 地方의市債도八分로다高利는업스나京城府釜山府等信用이잇는團體가一分內外로高利로借用할外他道가업다는것도債券發行이許可되지못한理由이다債券發行이許可되면京城府等七分六七厘의資金은可能할것이요王要한府이면八分以內로足할듯하다云云

下旬鐵道荷動

前回보다減退

七月下旬中鐵道局線의貨物運送總量은七萬四千二百三十一噸으로前年에比하야一萬一千二百二

朝鐵上半業績

利益二十萬圓

朝鐵의上半期決算은鐵道局監督課에서檢査中이든바四日로終了하얏는대今期利益金約二十萬圓으로昨年下半期보다約十萬圓假量이增加인바此는國鐵博覽會等으로營業收入이가장良好하얏든것이라더라

郵貯利上은

오즉時期問題

組合銀行預金協定率은七分五厘를七分으로都市金融組合은八分五厘를八分으로引下하야預金은金利의關係로全部金融組合에吸收되는바銀行業者가紳士的으로此協定을協約치아니하면問題가업스나最近朝鮮의郵便貯金引上이問題가되는것으로此에對하야遞信局長은아래와갓치말하더라

朝鮮의郵便貯金은五分四毛로據置貯金은五分二厘八毛이나年貯金과預入引出月에利子가업슴으로全部를計算하야보면遞信局에서支拂하는利子는겨우三分九厘에不適合으로銀行業者와金融組合을壓迫하지아니하는範圍로利子를引上할餘地는充分히잇스나故下岡政務總監도此希望을가지고渡東한바에濱口前藏相이郵便貯金의利子는引上치아니한다고聲明한後이엿슴으로引上치아니하엿스나時期의問題를上할必要가잇다

農事改資

融資決定

朝鮮產米增殖計劃에依하는本年度大藏省預金部低資融通額八百五十萬圓中土地改良資金四百五十四萬六千圓은去二十日朝鮮殖產銀行과東拓經由로貸出인바此資金은水利組合에對하야貸付가終了하고그殘額의農事改良資金三百九十五萬四千圓은殖銀二百五十五萬圓, 東拓百四十萬圓으로主로肥料資金等에融通할을決定하야不遠間在資金을融通케되엿다더라(東京電)

京城屠殺頭數

七月中京城府屠畜場의屠殺數는牛一千三百八十四頭, 馬一頭, 豚四百四十二頭計一千七百九十七頭로一月以後累計를보면牛九千三百七十五頭, 馬十三頭, 豚三千六百八十一頭, 羊一頭, 總計一萬三千七十頭이라더라

前場頭重

四日 仁川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前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昨後場三十五圓六十六錢에歡賜하엿는데今朝阪地初付는八丁低付하야三十八圓五十錢을報하엿스나當地는案外强硬하야二十五圓五十錢에四丁高로初付한後阪地二節小高와共히七十四錢에强化하다가阪地가다시五十錢에로急히六十五錢에低落하야六十錢을示하나强派의買物이出現하야六十九錢에反騰하엿스나『모도리』에는㊂에서賣壓하야다시六十五錢의小弛하야活氣업는商狀으로相持하다가結局六十四錢에頭重하다

後場稍高

	當限	中限	先限
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前日後止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取組高 (單位石)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入價格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賣買高 當[illegible] 中[illegible] 先[illegible]

各店假合

中限◇賣方[illegible] ◇買方[illegible]
先限◇賣方[illegible] ◇買方[illegible]

日本地震과

機界影響如何

東京發至急電報는東京地方大地震이잇다고報하엿다其被害程度가如何는알길이업스나家屋倒壞列車運轉不能交通杜絶된것은事實인듯하다五年前大震災의被害를다시恢復치못하고잇는此際에又復大地震이라하니財政經濟界에大打擊이라고아니할수업다年前의大震災로因하야株式期米의大慘落에直面하야當時記憶이새로운바에一邊今後의形勢를限하는바가아니나그처럼多幸이나時局의이에對하야多大한影響이繼續하야깁흔恐慌이라할는지도今後의機界影響을凌駕하는財界는또다시悲觀될것이니따라서株式期米의慘落이잇슬것은免치못할것이다今朝阪地步調의惡化하는것이벌서其震災被害程度가外지不少할것이라하는바저는人氣의擴露인지도알수업는일이다

農家態度注目

天候는好順

從此의米價는依然天候良否에支配되고마는것이다只今外지現實高價를云謂하야온것은農家平均의威力인데當場의日本天候는好順더맘할수업다고하거니와今後에도其好順을持續만하면米는一年후인만치農家는其持米를全部放出안코는못견딜것이니정말在米가貴하야질端境期에가서集散地在米減少의結果를보게되야騰貴氣分과가치急轉直下를보게될것이나萬一今後天候에變調가生하는境遇에는平均買의淺味를본農家는더욱賣惜하야集散地의정말在米枯渴의現象을演케할것이니그러면在米는더욱氣勢를張하야强派의豫想하는端境高의結果를볼것이다그러한즉今後騰落은오즉天候에農家態度如何에存在하다고할수잇다

今日天候

陰濕한天候繼續

◇概況=昨日朝鮮을通過한低氣壓은樺太方面에去하고高氣壓은琉球와小笠原中間海上에外一千六〇粍를示하고잇다天候은山東地方은雨를催하엿스나滿洲는好晴한곳이多하고朝鮮은北鮮地方에晴天을보는外에其他는一般에陰鬱하고南鮮方面은處處에驟雨가잇다日本은晴天이相半이다 ◇豫想=高氣壓은日本南方洋上에在하고亦黃河流域에는新低氣壓이出現하는貌樣이보이는故로朝鮮의天候는繼續陰濕하야處處驟雨性의雨가잇슬뜻하다 (四日仁川觀測所發表)

鮮線으로본

今後의强弱

鮮線이라하는것은元來時勢騰落을左右할까닭이업다다만旣往의事實을가지고將來를推察한다는意味에서鮮線도一槪히내버리지못할것이라고하는바이다그러한데目下의鮮線은엇더하냐하면五月六月은一直線으로棒上되고七月은大暴騰合을演하고야今月에入하야는新市의下落로阪地는八十一丁當地는百四十一丁의差間을외이고잇다하니아래에이는것은其間에前番高價近時에뛰어其空間을메우지못하면易하고轉下하고마는것이旣往에前例이다番番이其前例를밟으드시路奧하는것은아니로되現下環境이急히騰貴할거라目下鮮線의此際이라注目하는光景이다

米豆餘墨

◇…阪仁步調가조금軟化하는것을보고는當地는또綿維하기始作한다當初三百餘丁이든것이僞先二百八十丁으로되엿다 ◇…大阪은前月부터完全히三割通納의現象으로되엿는데當地는依然絶縮을維持하고또一年前高値에잇는것은事實이다 ◇…綿放로日本注文도들어오지못한다는데興業新地高强의材料가되라느니獨高場所가되어기에조금困難한바이잇다 ◇…年前의大東京地震은各地에大打擊을주엇는데그것에比할것은아니겟지만은東京에大地震이잇다하니年前經濟한記憶이新한데이번에其被害程度如何에따라機界에多少影響이업지아니할걸 ◇…只今外지의報道를가지고判斷하야볼지라도經濟的損失이不少한模樣이니機界에好影響은주지못할듯

仁川正米標準時勢

三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四等合格米	一石	[illegible]
無檢查地方米	一石	[illegible]
一等精白米	一石	[illegible]
改良種	一斤	[illegible]
在來種	一斤	[illegible]

大阪期米

	當限	中限	先限
前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七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八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一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四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五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六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後場止跡氣配 ◇先限 三十八圓五十九錢

東京期米

	前場		後場
一節	[illegible]	五節	[illegible]
二節	[illegible]	六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七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八節	[illegible]

兵庫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下關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桑名期米

	付價	止價
前場	[illegible]	[illegible]
後場	[illegible]	[illegible]

各地期米高低

	前日止價	今日前付	比較
仁川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東京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兵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下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桑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低

各地穀物

釜山 賣買高 [illegible] 殼良 [illegible]
前場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一節～六節 [illegible]
大邱 賣買高 [illegible] 殼良 [illegible]
前場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一節～五節 [illegible]
群山 賣買高 [illegible] 糸綿 [illegible]
前場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一節～四節 [illegible]
後場 八月末 九月中 九月末 一節～六節 [illegible]

株式 前場硬勢

京取 四日

二節	[illegible]
三節	[illegible]
四節	[illegible]

一般硬化商情

▲京取十錢高 ▲鐘新二十錢高 ▲大新十錢高

大新은百十圓四十錢付價後六十錢高價外지잇섯다가引際에軟退하야保勢를示하고鐘新은新田寶物로百五十五圓三十錢으로下鞘를示한後大引은五十錢買人氣이엿고京取는三十圓付價로强含이엿스나繼續薄商內의閑散을불하엿다

日本地震無響

昨日早부터大新은底强味를띄여上伸의氣勢를示하엿든바昨日午後六時頃에日本關東地震이잇섯슴으로此反響이不無하리라하엿스나被害程度가僅少한結果一般人氣는此에冷靜하야今朝에는別로反響이업시도리혀大新鐘新은强保를示하엿다

京取三十圓臺

그새京取는二十九圓十錢低價外지잇슨九圓八九十錢의保勢를持續하고一面合倂의成行을注目하야一般仕手는見送할뿐이나今朝에는大新高를伴하야三十圓付價一口가잇섯고依然薄商內를불하엿다

今後高價觀

買氣喚起?

오랫동안保勢와同時에鈍氣物一巡으로機會를보아買氣가捲頭하는氣味가잇스니昨日『스ー필』의出現으로此反轉이相當하고商品市場의別로資金必要가업는것은株界에對하야金融緩和의餘地가잇다는것이將來臺頭할는投機人氣를涵養하는것이라는點으로도今後高價觀의有勢하며따라新規買氣가喚起하는傾向이잇다

紐育株大躍騰

新景氣出現

紐育株式市場取引所에서는諸株가솟騰한外電으로延長하엿스며(이번新高價는『커네카트, 모ー톨』, 에스스ー틸』보통株가三百十三株는百五十三兆쫌을大히되엿다(紐育三日發)

前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鐘新=[illegible] ◇大新=[illegible]

後場反落

大新百十圓臺割

▲京取保價 ▲大新八十錢低

後場諸株步調

◇京取=[illegible] ◇大新=[illegible]

京取短期取引

株名	前場	後場
京取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大新	[illegible]	[illegible]

短期賣買成立高 合計 [illegible]枚

大阪長期取引

株名	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大株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紡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短期取引

株名	付價	前場止價	後場止價
大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鐘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糖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久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郵船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同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京現株前場

鮮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拓	[illegible]	同新 [illegible]
殖銀	[illegible]	同新 [illegible]
滿鐵	[illegible]	同新 [illegible]
東株	[illegible]	日石 [illegible]
連取	[illegible]	富士新 [illegible]
鮮紡	[illegible]	

大阪三品

	前場付價	止價	後場止價
八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九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十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前場付價	止價	後場付價
當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橫濱生絲

當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前場 現物武州 [illegible]

京城綿絲布

▲綿布(廣木) 三A [illegible] 不老草 [illegible]
大桃鼎 [illegible] 蔘 [illegible]
三 A [illegible] 天桃A [illegible]
三 A [illegible] 大牡丹 [illegible]
金附 [illegible] 九 [illegible]
▲綿布(洋木) [illegible] 管 [illegible]
▲細 [illegible] 嬋娟 [illegible]
飛大18 [illegible] 鳥 [illegible]
▲晒金巾(下木) [illegible]
▲綿 [illegible] 鹿 [illegible]
▲晒木綿(광목) [illegible] 女 [illegible]

◎京城手形交換

枚 [illegible] 金額 [illegible]

◎朝鮮銀行券 三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日本銀行券 三日

發行高 [illegible]
正貨準備 [illegible]
保證準備 [illegible]
限外發行 [illegible]
貸出高 [illegible] (千圓單位)

◎日本金利 三日

	東京	大阪
無條件	[illegible]	[illegible]
翌日物	[illegible]	[illegible]
月越物	[illegible]	[illegible]
六十日	[illegible]	[illegible]
貨通割引步合	[illegible]	[illegible]

(一錢單位)

◎對外爲替 四日着

對英 一志一片八分三
對米 四七弗一六分五
上海 六五兩八分七
(朝鮮銀行建値)

◎海外經濟 四日着

倫敦銀塊 二九片十六分三
紐育銀塊 六三仙四分一
米綿 二十錢低
印綿 二十錢高
英米爲替 四弗八六仙四分一
스털링 一五二弗八分一
아나콘다 五〇弗八分五

商品市況

◇麥粉(銘柄)麥粉은依然荷動이不活潑하는商狀으로下關線이나마中國二十六錢의保勢인바當地倉庫渡四圓五十錢의新着

麻衣太子 【八八】

春園 作 丹谷 畵

사랑과원수【一〇】

왕은 일변형승에게명하야 궁예와잇지말고 오직 재조잇는 궁예를말래어 오록일만 궁예를아슬라에 머물게하라하고 일변잘달리는 말을 골라 세달사에사람을보내어 궁예의 스님되는중을불러오게하엿다

이때에허담(虛潭)화상은조허와선종놈다 일허버리고 병든몸는몸이 의지할곳이업서 사중며테젊은 중들에게 몰려가며사중을받고 어서죽을날을 기다리고잇섯다 무론 허담화상뿐아니라 사중에잇는 중들도 소허가진허이되고 선종이 궁예가되엇스리라고는 꿈도못꾸고 잇던터이라 서울서온왕의사자가

『이절에궁예라는 중이잇소』

하고무를때에는 모다 눈이둥굴해서 허담화상바를 일지못하엿다 궁예가 애꾸장군이라는말은 들엇스나 천하에 애꾸가한사람뿐이아니라든 애꾸선종이가 궁예신장군이라고는미둘수도업섯던것이다

『사중에년전에 선종이라부르는애꾸중이 잇기는 하엿사오나 궁예는 본산에잇슨일이 업사옵니다』

하고 로승은 사신에게아뢰엇다 사신은

『시각이급한때라 일각도지체할수업스니 그선종인가 하는중의스님에게로 안도하라』

하엿다 허담화상은 왕의사신이 왓다는 말을듯고 놀래어 젊은중들의 부축을바다 자리에 넘어나 사신을마잣다 사신은 공손한말로

『대사가선종의스님이오?』

하고물엇다 허담화상은 황송하야 여러번 망장하며

『네ㅡ소승이 상좌두놈을두어 한놈은선종이라하옵고한놈은소허라하옵더니 두놈이다 늙고병든소승을버리고 년전에 다라낫사옵고 그런후로는 어듸로가서 엇지되엿사온지 소식이업사옵니다 그놈들이 무슨일을저질넛사온지 알수업사오나 한놈은 아조흉물스럽고 간사한놈이옵고 한놈은정직하오나 우악부박하옵기로 아마사람을죽엿든지 하오릿가 아마사람을죽엿는지 알수업사옵니다』

하고 두놈을생각하매 신히괘씸

한도시 화상은낫출찡프리고 입맛을다신다

사신은 더길게말하지 아니하고곳사중에 명하야 탈것을장만하게하고 왕이화상에게 보내는대승정(大僧正)의의복일습을 염불도모르는 허담화상에게 입혀성화가치서울로다리고올라왓다

사중에서도 영문을모르고 허담화상도 영문을몰랏다 그러나 왕이허담화상에게대승정의법의일습을 나리신것을보니 볼길한일은 아니라고 안심하고사중이모도 벌어나와 동구밧까지 허담화상을 전송하엿다

허담은 서울에 오는길로왕께뵈옵고

『들으니 궁예는본시 대사의상좌라하오니 이제궁예가군사를모라 서울을 핍박하니대사가한번가서 궁예에와 화친을 하도록힘을써주오』

하는어명을바들때에화상은한번더놀래어

『그놈이 궁예야』

하고왕의입을물도두르다가 길렷다 화상의눈에는 그어느해 노존가을 세달사동구에서 도토라주어먹던 흉물스러운 애꾸아희놈이보이고

『이놈동덕와작로고나』

하고자기가붙엿데에

『아니오애꾸가 나하나뿐인가요?』

하던것이 생각이낫다

왕은허담화상으로대승청국사(大僧正國師)를봉하야 정사(正使)를삼고대아손치원으로 부사를삼아 죽일로아슬라를 향하고 떠나게하엿다

허담국사는누운대로가마에담겨『어놈선종이놈이 놈하고편해중업거라며 찬란한운사(雲鶴)의 법의를편해만지고빙그레웃것다

社告

一, 名稱 淳昌支局
一, 位置 淳昌郡內
一, 區域 淳昌郡一圓
一, 職氏名 支局長 楊相䧺
記者 孫 角
顧問 金英武
同 權炳默

右와如히支局을變更하엿삽기玆에社告함

東亞日報社

懷中藥 仁丹

●世界的으로 萬人常備의 保健劑

適應症 消化不良 飲食中毒 溫暑酷暑 胃擴張 胃加答兒 腸加答兒 心惡吐嘔 血貧弱虛 腸宿後絶 變態

消化素 四香料 四博士責任劑 ポケット必携

●金言 건강을알고나를아라야業에勵하니라 (備公東洲)

齒磨界의最高權威 仁丹ハミガキ 科學的優秀 高貴料配合

宮內省 東宮御所 御用命 仁丹の体温計 四博士指導 什博士推奬